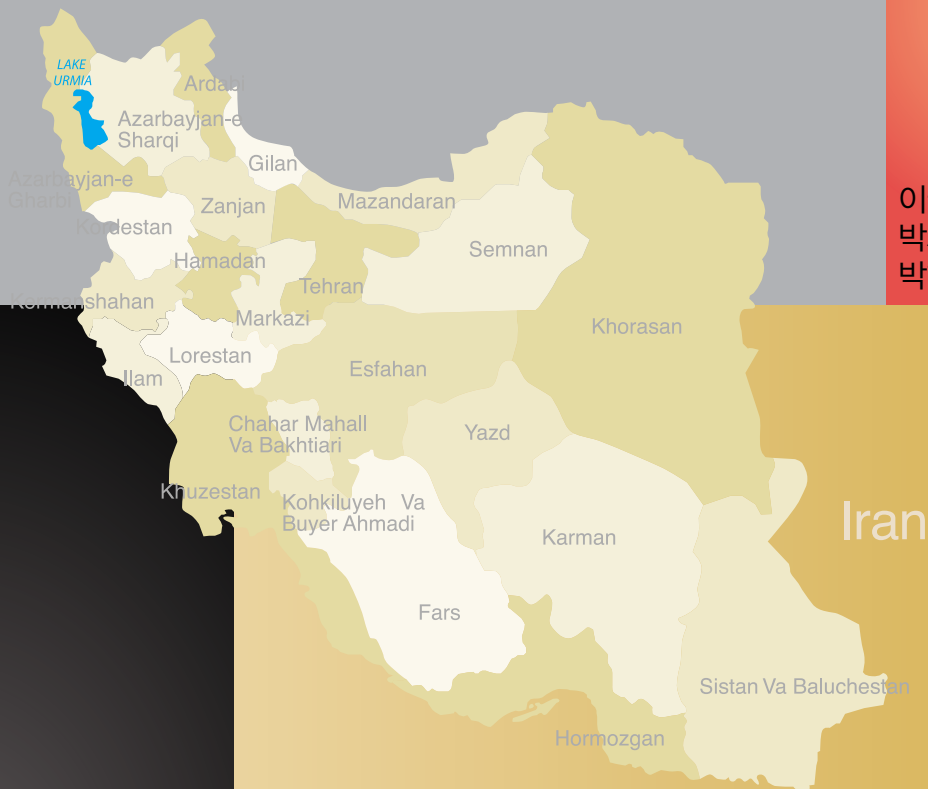


Middle East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이권형
박재은
박현도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이권형 · 박재은 · 박현도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슬람 혁명 이후 새로 구축된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권력구조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파간 분열과 연합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른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고 이슬람 혁명의 가치, 즉 이슬람법의 지배와 경제적 독립을 저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란 경제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에서도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이란 국제체제가 강화된 상황은 이란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에 내재한 공화국체제의 속성으로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치세력들이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에 따라 서로 대립하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파간 차별성을 주요 정치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보면, 1980년대 무사비 정부는 혁명 직후의 전시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통제경제를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도 이슬람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이슬람주의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라프산자니 정부는 전후의 경제재건사업을 추

구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상인 엘리트 계층의 지지와 함께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 반면 하타미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은 라프산자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더 많은 유치를 선호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이전 하타미 정부의 개혁 노선에 반기를 들고 최고지도자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사비 정부의 국가통제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였다.

향후에는 전 하타미 대통령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이란의 정치시스템이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공존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체제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 및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정치적 자유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개혁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과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정파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정파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기업부문이나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하메네이 중심의 정파에서는 전통적인 대(大)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개혁파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기술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산업자본가들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보다 강화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민영화 및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특수성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이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로 물류, 판매대금 결제 등 여러 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 규모가 7,500만 명 이상으로 중동지역에서 최대 소비시장이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건설·플랜트 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도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란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된 이후의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국문요약	3
■ 제1장 머리말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13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16
■ 제2장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과제	19
1. 이슬람법 정치의 배경 및 역사	20
2.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	25
3. 이란 헌법의 특징 및 역할	40
4.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46
5. 시사점: 향후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	52
■ 제3장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57
1. 주요 정치세력의 구분	58
2. 2012 총선을 둘러싼 주요 정파별 동향	64
3. 핵 개발에 따른 국내외 정치 동향	70
4. 시사점: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	81
■ 제4장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	85
1. 개요	86
2.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1980~90년대 초반	89
3. 실용파와 개혁파의 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95

4.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2000년대 중반 이후	103
5. 시사점: 향후 경제정책 전망	110
Ⅱ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15
Ⅱ 참고문헌	123
Ⅱ Executive Summary	129

표 차례

표 2-1. 시아파의 12이맘	21
표 2-2. 12대 이맘의 대리자	23
표 2-3. 이란의 정치체제	26
표 2-4. 역대 대통령	29
표 2-5. 역대 국회의장	31
표 2-6. 최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헌법 110조)	32
표 2-7. 역대 전문가의회	34
표 2-8.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35
표 2-9. 국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38
표 2-10. 최고국가안보수호위원회 구성	39
표 2-11. 혁명수비대 관련 주요 기업 및 인물	50
표 3-1. 2009년 대선 투표 결과	65
표 3-2. 주요 정파별 2012 총선 결과	70
표 4-1. 주요 정파별 특징	89
표 4-2. 2005년 대선 1차 투표 결과	106
표 4-3. 2005년 대선 결선 투표 결과	106
부표 1.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 내각 명단	12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17
그림 2-1. 이란의 권력구조	28
그림 2-2. 최고지도자의 권한 범위	33
그림 2-3. 국회 제정 법안 흐름도	37
그림 2-4. 군 체계도	40
그림 2-5. 이란의 이슬람법학자 칭호 위계도	49
그림 4-1. 정파별 변천도	88
그림 5-1. 주요 정치지도자의 경제정책 및 정치 성향 비교	118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이란은 핵 개발 의혹, 시리아 정부 지원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의 주요 수출상품인 원유 거래가 감소하고, 이란 내부에서도 통화가치의 극심한 하락,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도 크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양국의 교역 거래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은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 이란간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외경제정책 차원에서 이란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원 중의 하나이면서 중동지역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그만큼 이란의 정치·경제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향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향후 긴장 관계가 해소된 이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은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주요 정치세력간 대립이 심화되어 향후 대외 관계 및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¹⁾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이란의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

1) 본 연구에서의 이란 인명 및 지명의 표기는 현지 발음을 따르기로 한다. 영문 표기시 일반 관례를 따르되 편의상 발음부호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정책의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고려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세 개의 주제는 각각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양자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연계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이슬람 혁명 및 이슬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권력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체제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화국체제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등의 기관을 장악하고 이슬람 혁명 및 이슬람법 가치에 반하는 법률과 인사들을 통제한다. 후자는 행정, 의회, 사법 등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직선으로 선출한다. 양 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이란의 정치체제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이슬람 혁명의 기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의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바와 같이 양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란 정치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는 호메이니 사후 하메네이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의회는 4년마다 직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집권 정파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정파의 성격에 따라 이란의 대외관계 및 경제정책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라는 이질적인 두 체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치세력을 크게 보수파 대 개혁파 · 실용파로 구분하고 2009년 대선 및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나타난 주요 정파별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2013년 대선 이후 나타날 정치세력의 판도를 전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현 집권세력의 대외관계정책과 국제사회의 긴장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측면인 핵 개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이 문제는 ‘핵 주권론’을 매개로 이란 내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정치세력의 판도를 전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고유의 정치·권력구조하에서 집권세력이 수차례 교체될 때마다 어떠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먼저 이란 정치체제의 특성이 경제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체제 내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슬람체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영화, 대외개방 등과 같은 민감한 경제정책일수록 각 정치주체들간의 논쟁이 심화되고 결정과정도 길어지게 된다.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경제정책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파별 입장을 통해 각 정파의 지지 기반과 그에 따라 각 정파가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 정치세력 중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정파는 없지만 국가통제 경제부문의 비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 등에서 정파별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정파별 지지기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 및 면접조사를 이용한다.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정치 및 권력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장병욱(2004)의 『현대 이란정치』가 있다. 이 연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전후의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정상률(2011)은 이란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각 부문의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Thaler *et al.*(2010)은 주요 정치권력기관간의 제도적 관계 및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이란의 정치 동향을 설명한다. 주요 정치세력의 최근 동향 및 총선 결과 등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현지 언론을 비롯한 국내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다.

이에 비해 정파간 경제정책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 문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윤서영·박철형·강성수(2010)는 이란의 산업정책을 검토하고 자동차산업, 전력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여 이란의 경제 및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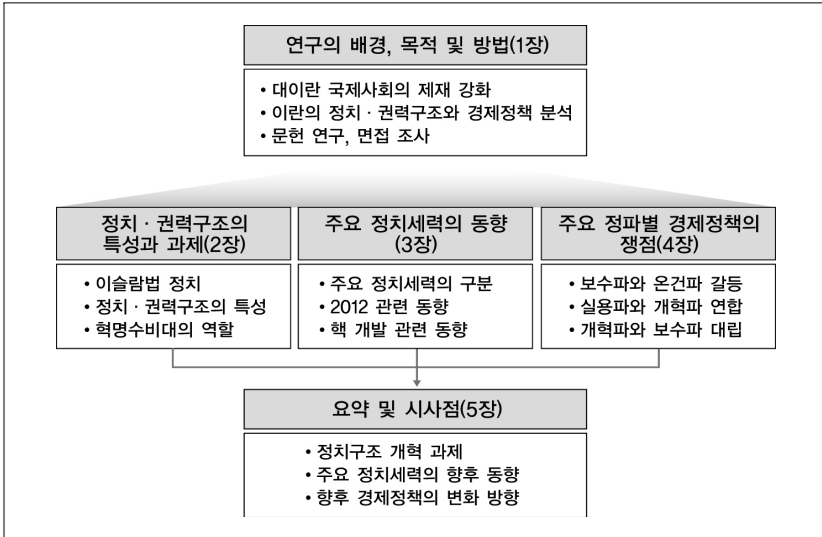
외국문헌에서는 Pesaran(2011)이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이슬람 혁명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Ghasimi(1992), Karshenas and Pesaran(1995) 및 Amuzegar(1999)는 1990년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였다. Rakel(2009)은 주요 정파별로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과 관련된 입장을 구분함으로써 이란의 정파별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Ilias(2010)는 이란의 경제 및 산업 구조, 교역관계,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군사조직이면서도 제조업, 석유화학산업, 건설업 등과 관련된 다수의 기업을 관리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Wehrey *et al.*(2009)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IU,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에서 발간한 국가별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최근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이란 경제 동향 및 현지 분위기와 이에 대한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는 현지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는 2012년 6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은 이란의 정책 담당자 및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었다.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세 개의 주제를 각각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슬람법 정치체제, 헌법 및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 등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구조적 관점에서 이란의 정치체제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정

그림 1-1. 연구의 흐름



치세력을 보수파 대 개혁파·실용파 간 대립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2012년 3월에 실시된 총선의 특징 및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현 이란 정부를 대표하는 보수파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핵 주권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경제정책이 어떤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는지 시기별 구분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역사적 접근이 시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정치 및 권력 구조의 개혁,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란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

및 권력 구조의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그리고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세 측면이 각각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기초연구로서의 한계가 있다. 즉 향후 차기 과제로서 부문별 심층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정파별 성격을 통해 경제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을 것이다. 즉 이란의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파의 주장 및 경제정책이 바뀌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이 깊이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제2장 정치 · 권력구조의 특성과 과제

1. 이슬람법 정치의 배경 및 역사
2.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
3. 이란 헌법의 특징 및 역할
4.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5. 시사점: 향후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



1. 이슬람법 정치의 배경 및 역사

이란의 정치체제를 보통 신정(神政)체제라고 하지만, 이는 영어 theocracy의 번역어로 이란의 정치구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²⁾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정이라기보다는 이슬람법정(法政)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란어로도 이슬람법학자의 통치(Velāyat-e Faqīh)라고 하는데, 벨라야트(Velāyat)는 통치, 지배, 보호 등을 뜻하고 파기흐(Faqīh)는 이슬람법학자를 의미한다.³⁾

벨라야트는 일반적으로 칼리파(Khalīfah), 아미르(Amīr), 수피(Šūfī) 성인(聖人) 등의 통치를 의미하지만, 이란인 대다수가 따르는 12이맘 시아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기고 간 이슬람 신앙공동체의 지도자 이맘(Imām)의 통치를 말한다. 이맘이란 신의 말씀인 꾸란의 내적인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로 무슬림 공동체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지도자를 의미한다.⁴⁾ 시아 전통은 예언자 무함마드(Muḥammad)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순례를 마친 후 가디르 흠(Ghadīr Khumm)에서 사촌동생이자 사위이며 남성으로서는 최초로 이슬람교로 개종한 알리(Alī)를 자신의 사후 지도자로 지명하였다고 믿는다.⁵⁾

2) 신정이라는 말은 중세시대 교황권과 황제권이 충돌하던 서구의 경험에서 나온 용어로 이란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3) 아랍어로는 Wilāyat al-Faqīh라고 한다.

4) 이맘(Imām)의 어원적 의미는 앞에 나서는 자, 즉 인도자를 의미한다. 이 말은 순니 전통에서는 예배 인도자, 학자, 정치 지도자 등의 뜻이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이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아 전통에서는 순니 전통과는 달리 독특한 의미가 더해지는데, 예언자의 빛(Nūr Muḥammadī)을 지닌 흠 없이 순결한 사람으로 꾸란의 내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닌 존재를 지칭한다.

5) 무슬림 전승에 따르면 이때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나를 지도자(왕리

따라서 시아파는 알리를 첫째 이맘으로 여긴다. 시아파라는 말 자체가 시아트 알리(Shīfat ‘Alī), 즉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시아파의 이맘은 전임 이맘이 다음 이맘을 지명(naṣṣ)하는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란의 12이맘 시아파는 이맘이 12대까지 계승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임 이맘과 후임 이맘간 관계를 보면 2대 이맘 하산과 3대 이맘 후세인이 형제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부자(父子) 관계다. 따라서 4대 이맘자인 알 아비딘 알리부터 12대 이맘 무함마드 알 마흐디까지는 모두 3대 이맘 후세인의 직계후손이 된다. 시아파는 지명 계승되는 이맘이 선출

표 2-1. 시아파의 12이맘

순서	이름	출생	죽음	순례 성묘 소재지	관계
1	알리	?	661	이라크 나자프	무함마드 말 파티마와 결혼
2	하산	624/5	669/70	사우디아라비아 바끼아	알리와 파티마의 큰 아들
3	후세인	626	680	이라크 카르발라	알리와 파티마의 작은 아들
4	자인 알 아비딘 알리	658	712/13	사우디아라비아 바끼아	후세인의 아들
5	무함마드 알 바끼르	676	732~743?	사우디아라비아 바끼아	4대 이맘의 아들
6	자파르 알 사디끄	699~705	765	사우디아라비아 바끼아	5대 이맘의 아들
7	무사 알 카짐	745?	799	이라크 알 카지미야	6대 이맘의 작은 아들
8	알리 알 리다	765	818	이란 마슈하드	7대 이맘의 아들
9	무함마드 알 타끼	810	833	이라크 알 카지미야	8대 이맘의 아들
10	알리 알 하디	827	868	이라크 사마르라	9대 이맘의 아들
11	하산 알 아스카리	846	873/4	이라크 사마르라	10대 이맘의 아들
12	무함마드 알 마흐디	?	?	?	11대 이맘의 아들

자료: 저자 작성.

Walī)로 따르는 자에게 알리가 지도자다(Man kuntu mawlāhu fa hādha ‘Alī mawlāhu).”

계승되는 순니파의 칼리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또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딸이자 초대 이맘 알리의 아내인 파티마(Fātimah), 그리고 12명의 이맘까지 모두 14명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믿는다. 인간이기에 잘못을 범할 수 있음에도 오류를 저지르지 않은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여기며 존경하는 것이다.

12이맘 시아파 전승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12대 이맘이 된 무함마드 알 마흐디가 아버지인 11대 이맘 하산 알 아스카리(Ḥasan al-'Askarī)가 죽은 해인 873/4년에 장례식을 인도한 후 사라졌는데, 이를 가이바(Ghaybah), 즉 은폐(隱蔽)라고 한다. 이맘의 종적(蹤迹)을 알 수 없는 은폐기는 시기상 대은폐기와 소은폐기 두 시기로 나뉜다.

먼저 소은폐기는 사라진 이맘이 대리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한 시기를 의미한다. 네 명의 대리자가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이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였기에 대변인(wakīl), 대리자(nā'ib), 문(bāb), 대사(大使, safīr)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리자인 사마르리가 941년에 사망하자 이맘과 소통이 불가능해졌다. 그 이후를 대은폐기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시아파는 12대 이맘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 살아 있고, 세상이 불의에 가득 차 있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재림하여 알라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마흐디(Mahdī)로서 올바르게 인도된 자라는 뜻을 갖는다.

이러한 마흐디 사상은 순니의 다소 애매모호한 마흐디 개념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시아파만의 독특한 종교관이다. 순니 전통에서도 세상 종말에 마흐디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는

표 2-2. 12대 이맘의 대리자

대리자	
1	우스만 알 아므리(Uthmān al-'Amrī)
2	아부 자파르 무함마드 이븐 우스만(Abū Ja'far Muḥammad ibn 'Uthmān)
3	아부 알 까심 후세인 이븐 루흐 알 나우바크티(Abū al-Qāsim Ḥussayn ibn Rūḥ al-Nawbakhtī)
4	아부 알 후세인 알리 이븐 무함마드 알 사마리(Abū al-Ḥussayn 'Alī ibn Muḥammad al-Samarri)

자료: 저자 작성.

언급하지 않는다. 이맘 마흐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기에 시아 이맘 직은 역사적으로 공석(空席)인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이 12대 이맘의 대은폐기라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맘도 없고 이맘과 세상을 이어줄 매개인마저 없는 현실에서 금요합동예배 인도와 같이 이맘이 행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따라 이맘이 없는 상황에서 직면하는 여러 난제에 대하여 이슬람법학자들이 이맘 고유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이 13세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 흠스(Khums), 자카트(Zakāt), 지하드(Jihād) 등의 선포와 같이 이슬람법적으로 이맘의 현현(顯現)이 필수적인 사항에는 이슬람법학자들이 이맘을 대리한다는 ‘일반대리론(Niyābat-e ‘amma)’이 나타났다.⁶⁾⁷⁾

6) 흠스는 시아파 고유의 제도로 연간 지출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5분의 1, 즉 20%를 시아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따르는 아야톨라(Ayatollah)를 위해 내는 것이다. 오일조(五一租)로 번역할 수 있다. 아야톨라는 이를 시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자카트는 순니와 시아 공통의 것으로 현물 및 현금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현금으로 내면 보통 순수익의 2.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는 것으로 보통 구빈세(救貧稅)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는 세금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르는, 자발적이지만 동시에 신자의 의무인 기부행위다. 지하드는 흔히 성전(聖戰)으로 번역하지만, 이슬람 신앙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소극적인 자기방어를 의미한다.

7) 보다 상세한 논의는 Gleave(2003), pp. 510-511; Arjomand(1984), pp. 141-143; Calder(1987), pp. 91-105 참고.

이러한 이론을 상세히 다룬 최초의 학자는 아마도 아흐마드 알 나라기(Ahmad al-Naraqi, ?~1829)일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불가(不可)하다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슬람법학자들이 모든 면에서 예언자와 이맘이 지닌 권위와 권한을 지닌다고 하였다.⁸⁾ 이러한 생각은 법률적인 견해에 한정되었고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호메이니(Khomeini, 1902~89)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1960~70년대 세속주의 폭압 왕정에 맞서 이슬람법학자들이 현실정치를 인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연을 통해 피력하였고, 이를 1971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Velāyat-e Faqih)』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면서 이슬람 정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이맘 부재시 이슬람법학자들이 이맘을 대리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한 단계 뛰어넘어 이슬람법학자가 정부를 세워 이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법학자들이 그에 순종해야 한다는 통치이론을 주장하였다. 호메이니의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은 이란 헌법 제5조에 잘 표현되어 있다.⁹⁾ 이에 따르면 이맘이¹⁰⁾ 부재할 경우 그가 지닌 모든 권리가 정의롭고, 신앙심이 깊으며, 시대상(時代相)을 이해하고, 용감하고, 지식이 깊고, 통치능력이 있는 이슬람법학자인 최고 종교지도자에게 위임된다.¹¹⁾

8) Al-Naraqi(n.d.).

9) 호메이니의 저술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이 헌법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Bakshsh(1985)는 호메이니의 책이 혁명지침서로 이란 사회 재구성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본다. 반면 Omid(1994)는 호메이니의 책이 당시 이란 왕정에 대한 비판으로 법학자들의 인도 아래 더 나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약속 이상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1989년 수정헌법이 호메이니의 이론과 상치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Omid(1994), pp. 148-151 참고.

10) 헌법 본문에는 ‘시대(時代)의 주(主)’라는 의미인 ‘발리에 아스트르(Valī-ye Asr)’로 표현되어 있다.

이슬람 역사상 이슬람법학자가 정치에 전면적으로 뛰어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에 이란의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는 혁명적인 정치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슬람법학자들의 영향력이 여타 순니 국가보다 이란에서 강했던 것은 이란인의 남다른 종교적 열정과 함께 이슬람법학자들이 근세기 외세의 수탈에 맞서 항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란인은 홈스를 통해 시아 공동체를 지탱해왔고, 이슬람법학자들은 토지개혁, 담배 전매특허 등 왕정과 서구의 경제이권 수탈에 항의하고 반대의 선봉에 서면서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민중의 종교성을 무시한 채 세속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하향식 개혁을 강제했던 독재 공포 왕정에 대해 반감을 지녔던 일반 시민들이 꺾박받는 지도자 호메이니가 상징하는 이슬람에서 새로운 시대의 징표를 찾았다. 그 결과 마치 마흐디가 출현할 듯 불의가 가득 찬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이란인들이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²⁾

2.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

이란의 정치체제는 호메이니의 이슬람법학자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조합한 이슬람 민주주의이다. 즉 민주주의, 영성(靈性) 및 종교적 정부의 조

11) 또한 헌법 109조는 최고지도자의 조건으로 이슬람법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학자적 자질, 청렴하고 공정청대한 지도자 자질,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공정한 시각, 통찰력, 용기, 지도력 및 자신의 소임을 행할 수 있는 체력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2) 마치 은폐기에 들어간 12대 이맘이 현현할 것 같은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호메이니를 12대 이맘으로 여기는 민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은 호메이니에게 두 번이나 그가 오기로 한 마흐디냐고 물었는데, 호메이니는 이에 대해 두 번 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Nasr(2006), p. 131 참고.

합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개혁과 지도자로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하타미(Mohammad Khatami, 1943~)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영성의 공백(空白)으로 고통을 겪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이란은 이슬람 정치 체제를 택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였다.¹³⁾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란의 정체(政體)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국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의 정체는 이슬람과 공화국의 혼합 체제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이란의 정치체제

이슬람체제	공화국체제
최고 종교지도자(이슬람법학자)	대통령
12인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 8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의회	국회 (2012년 9대 국회 290명 정원)
이슬람·종교인 법정	민·형사법정
혁명수비대와 민병대(Basij)	정규군

자료: 정상률, 박현도, 안정국(2011), p. 64, 표 2-5 참고하여 수정.

이슬람체제의 핵심은 이슬람법이다. 무슬림이 믿는 종교관에 따르면, 인간을 창조하고 부활시켰으며 공명정대하고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근원인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예언자를 통해 올바른 길을 계시하였는데 샤리아(Sharī'ah), 즉 이슬람법은 이러한 신의 뜻을 모두 담은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법은 무슬림의 삶 전반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이며, 이슬람법학자는 이를 바탕으로 무슬림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성공 이후 들어선 이란의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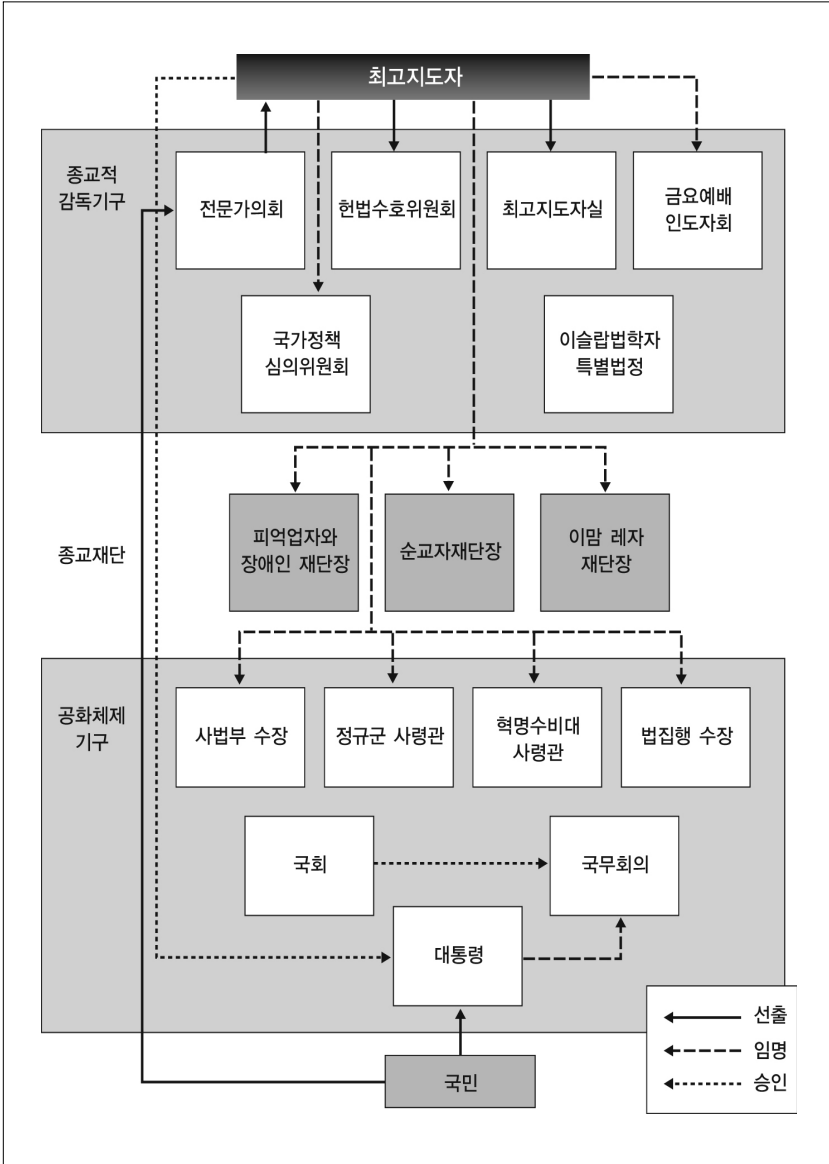
13) Esposito(2003) 참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이슬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법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할 이맘이 현재 대은폐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슬람법학자가 이맘을 대리해야 하는데, 그를 최고지도자(Rahbar, Supreme Leader)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이슬람법학자들은 이슬람법을 정치 및 사회 현실에 적용하면서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슬람체제를 수호하는 물리적인 힘은 혁명수비대에서 나온다.

공화국체제는 이슬람체제 아래 자리한다. 이란은 어느 민주국가와 다를 바 없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1989년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並存)하여 행정부 수장직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통령이 유일한 행정수반이며, 이란에서 최고지도자 다음으로 높은 직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 13명의 부통령(1명의 제1부통령과 12명의 제2부통령), 18명의 장관, 외교대사 등 국가 행정관료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임명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반면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장관 중에서 정보부 장관은 이란 내 모든 정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지도자와 조율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이슬람법학자로서 호자톨레슬람(Hojjat al-Eslam)이나 아야톨라(Ayatollah)여야 한다.¹⁴⁾

14) 아야톨라 및 호자톨레슬람은 호우제 교육을 받은 이슬람법학자들에 대한 호칭이다.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그림 2-1. 이란의 권력구조



자료: Raket(2009), p. 111, Figure 1 참고.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행정 각료를 탄핵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는 1981년 반(反)이슬람법학자 노선을 견지한 초대 대통령 바니 사드르(Abul Hassan Bani Sadr)를 탄핵한 바 있다. 또 1998년에는 하타미 행정부의 내무부장관 압둘라 누리(Abdollah Nuri)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고, 반정부 인사 몬타제리(Montazeri)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탄핵하였으며, 2004년에는 하타미 행정부의 호람(Ahmad Khorram) 교통부 장관에 대해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운영권을 터키·오스트리아 합작사에 넘겨

표 2-4. 역대 대통령

기간	대통령	총리	특징
80.2~81.6	아불 하산 바니 사드르 (Abul Hassan Bani Sadr)	모하메드알리 라자이 (Mohammad-Ali Rajai)	- 1981년 6월 탄핵 - 당시 총리였던 모하메드 알리 라자이가 대통령으로 취임. - 1981년 7월 프랑스로 망명
81.6~81.8	공석(空席)		- 임시대통령위원회(Provisional Presidential Council) 설치
81.8.2~81.8.30	모하메드알리 라자이 (Mohammad-Ali Rajai)	모하메드자바드 바호나르(Mohammad-Javad Bahonar)	- 1981. 8. 30. 대통령궁에서 폭탄 테러로 총리와 함께 암살됨
81.8.30~81.10	공석(空席)	모하메드레자 마다비카니(Mohammad-Reza Mahdavi Kani)	
81.10~85.8	알리 하메네이 (Ali Khamenei)	미르호세인 무사비 (Mir-Hossein Mousavi)	- 이란 2대 최고지도자(1989~현재) - 이슬람 공화당 대표(1981~87) - 이슬람 공화당 해체(1987. 5)
85.8~89.8			
89.8~93.8	아크바르 라프산자니 (Akbar Rafsanjani)	89년 헌법 개정으로 총리직 폐지	- 현 전문가회의 의장 - 전 국회의장(1980~89) - 전 내무부 장관(1979~80)
93.8~97.8			
97.8~01.8	모하메드 하타미 (Mohammad Khatami)		- 전 문화부 장관(1982~92) - 전 국회의원(1980~82)
01.8~05.8			
05.8~09.8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 전 테헤란 시장(2003~05) - 전 아르다빌(Ardabil) 주지사 (1993~97)
09.8~13.8			

자료: 저자 작성.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탄핵을 결정하였다.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2011년 베흐바하니(Hamid Behbahani) 교통부장관이 부적절한 인사정책으로 탄핵되었다.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임기 4년의 국회의원 290명으로 구성된다.¹⁵⁾ 이 중 5석은 소수 종교인들에게 할당되는데, 조로아스터교, 유대교에 1석씩, 앗시리아(Assyria) 그리스도교와 칼데아(Chaldea) 가톨릭 그리스도교에는 합쳐서 1석,¹⁶⁾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에는 남북지역에서 1석씩 모두 2석이 각각 할당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투표로 선출한다. 이란에는 정당을 지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는 정파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는데, 정당이 없기에 정파정책이 아니라 후보 인물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국가 예산을 승인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연구 조사할 권리가 있다.

공화국체제를 이슬람체제의 하부구조라고 설명한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이슬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슬람법학자들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고지도자, 전문가의회(專門家議會),¹⁷⁾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다.¹⁸⁾ 이란의 국가원수인 최고지도자는 국민이 아

15) 2011년 7월 국무회의는 2012년 총선 국회의원 수를 290명에서 31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16) 이 두 교파는 원래 하나의 교파로 5세기 현 주류 그리스도교와 갈라졌다가 16세기에 두 파로 다시 갈라졌다. 칼데아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로마가톨릭교회와 화해하여 일치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톨릭이라는 말을 붙인다.

17) Majelis-e Khobregan-e Rahbari(Assembly of Experts of the Leadership).

18) Shora-ye Negahban-e Qanun-e Asasi(the Guardian Council of the Constitution).

표 2-5. 역대 국회의장

기간	국회의장	성향	특징
80.6~80.7	야돌라 사하비 (Yadollah Sahabi)	-	- 전 테헤란 대학교 교수 - 전 국회의원(1980~83) - 이란 석유산업 국유화 주창자
80.7~89.8	아크바르 라프산자니 (Akbar Rafsanjani)	실용파	- 전 내무부 장관(1979~80) - 전 대통령(1989~97) - 현 전문가회의 의장
89.8~92.5	메흐디 카루비 (Mehdi Karroubi)	개혁파	- 전 투쟁적 종교지도자협회(MRM) 대표(1988~05) - 현 국민신탁 대표(National Trust Party, 05~현재)
92.5~00.5	알리 아크바르 나테크누리 (Ali Akbar Nateq-Nouri)	보수파	- 전 내무부 장관(1981~85)
00.5~04.5	메흐디 카루비 (Mehdi Karroubi)	개혁파	- 전 투쟁적 종교지도자협회(MRM) 대표(1988~05) - 현 국민신탁 대표(National Trust Party, 1905~현재)
04.5~08.5	골람알리 하다드아델 (Gholam-Ali Haddad-Adel)	보수파	- 현 국회의원(2000~현재)
08.5~현재	알리 라리자니 (Ali Larijani)	보수파	- 전 문화부장관(1992~94) - 전 이란 국영방송 국장(1994~2004) - 전 국가최고안보위원회 위원장(2005~07) - 현 국회의원(2008~현재)

자료: 저자 작성.

나라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는 군통수권자로 혁명수비대 사령관 및 군(軍)참모총장 임명권, 전쟁 선포권을 지니고 국방·사법·언론 등 이란 사회 전 분야를 이끄는 최고권력자다.¹⁹⁾ 헌법 110조는 최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를 [표 2-6]과 같이 11개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19) 언론은 여섯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관리하는데, 최고지도자는 이들 위원 중 두 명을 임명한다. 나머지 네 명은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두 명씩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을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므로 사실상 최고 종교지도자 몫은 네 명이다. 최고지도자는 이들 위원을 해임할 권한도 있다.

표 2-6. 최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헌법 1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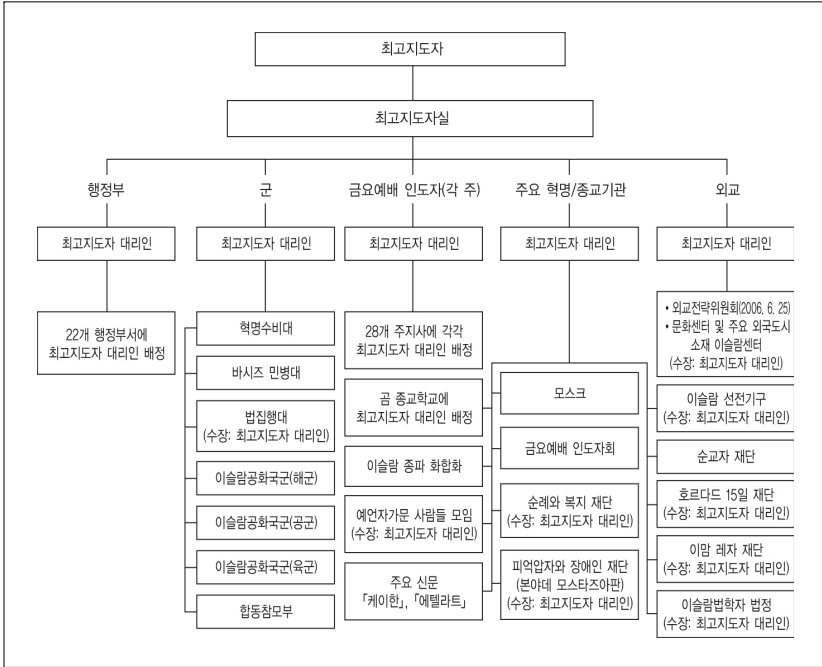
최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	
1	행정부와 협의하여 이란 내 모든 정책 결정
2	정부의 모든 정책 감독
3	모든 이슬람법 및 헌법 해석
4	군통수권
5	전쟁 및 종전 선언
6	임명, 면직 및 파면권: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학자, 대법원장, 국영 방송국장, 참모총장, 군 총지휘관, 각 군사령관
7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 분쟁 해결
8	정치적 및 경제적 분쟁 중재
9	대통령 임명권, 대통령 후보 자질 심사 최종 결정권
10	대법원 판결이나 국회가 재적 2/3 찬성으로 탄핵 시 대통령 해임권
11	사법부 의견을 준수한 이슬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면권

자료: 저자 작성.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은 행정, 군사, 예배인도, 혁명 및 종교 기관, 외교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최고지도자는 이들 각 분야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뜻을 관철하고, 국가기관을 통치한다. 예를 들면, 행정부 22개 부서에 최고지도자의 대리인이 임명되어 정부의 정책을 감독한다. 최고지도자 대리인은 전국적으로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최고지도자는 이란 전국 각 주의 금요일예배 인도자를 임명하며, 종교재단과 외국 주재 이슬람문화센터 역시 모두 최고지도자의 관할이다. 2006년 6월에는 외교전략위원회가 설립되어 외교 현안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²⁰⁾ 최고지도자실은 이러한 업무를 총괄한다.

20) Samii(2006) 참고.

그림 2-2. 최고지도자의 권한 범위



자료: Buchta(2000), p. 49, Diagram 9 참고.

헌법 107조는 전문가의회가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의회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86명의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8년이다. 전문가의회 출마자는 이슬람법에 능통해야 한다. 여성도 입후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슬람법 관련 지식에 대한 검증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란에서 이슬람법에 대한 권위를 지닐 정도의 능력을 지닌 여성이 없고, 종교교육체제상 향후에도 여성 이슬람법학자 배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모든 의원은 호우제(Howzeh, 종교학교)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종교학교에서 이슬람법을 공부하였으며, 아야톨라 또는 호자톨레슬람으로 불릴 수 있는

표 2-7. 역대 전문가의회

	기간	특징
1	1983~1991	1989년 하메네이를 최고 종교지도자로 선출
2	1991~1999	투표율 급감 (1983년 77 % → 1991년 37%)
3	1999~2007	비이슬람법학자들의 입후보 시도가 거부당함
4	2007~현재	여성과 비이슬람법학자의 입후보 허가 심사과정에서 모두 무자격 처리됨

자료: 정상률, 박현도, 안정국(2011), p. 59, 표 2-3.

법학자들이 의원이 되었다.

전문가의회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감독하며 해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선출 외에 감독 및 해임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2012년 6월 아야톨라 마흐다비 카니 의장은 전문가의회가 최고지도자를 감독한다는 말은 최고지도자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고지도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 또는 비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²¹⁾ 전문가의회는 연 2회 소집되는데, 2012년 7월 개원 이래 처음으로 두 번의 정기회의 사이에 중간회기가 개최되었다.

이란에서 법을 다루는 모든 일은 이슬람법학자들의 관할 아래 놓여 있다. 그 정점에 있는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은 바로 공포되지 못하고 헌법수호위원회가 이슬람법에 맞는지 다시 심사한 후 통과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렇듯 이슬람법학자들이 이란의 모든 법을 관장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4조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권, 세금, 경제, 행정, 문화, 정치, 정책은 반드시 이슬람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이 원칙은 모든 헌법과 법률에도 적용되며, 이슬람법학자들이 법률

21) Radd-e salahiyat-e 600 namzad-e jarayan-e enherafi(2012).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90조에 근거한 헌법수호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최고지도자가 이슬람법학자 중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중에서 골라 국회에 추천하여 국회가 임명한다. 헌법 92조에 따르면 임기는 6년인데, 첫 재임기간에 한하여 임기 3년이 지나면 투표를 통해 위원 50%를 교체하게 되어 있다. 현재 아야톨라 잔나티(Ayatollah Ahmad Jannati, 1926~)가 위원장이다.

국회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²²⁾ 또 헌법수호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여 출마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란에서 국민 직선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표 2-8.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구분	위원
위원장	아야톨라 아흐마드 잔나티(Ayatollah Ahmad Jannati)
대변인	압바스 알리 카드호다이 박사(Dr. Abbas Ali Kadkhodai)
이슬람 법학자	아야톨라 마흐무드 하셰미 샤희루디(Ayatollah Mahmoud Hashemi Shahroudi) 아야톨라 모함마드 레자 모다르레시 야즈디(Ayatollah Mohammad Reza Modarresi Yazdi) 아야톨라 모함마드 모멘(Ayatollah Mohammad Momen) 아야톨라 골람레자 레즈바니(Ayatollah Gholamreza Rezvani) 아야톨라 모함마드 야즈디(Ayatollah Mohammad Yazdi)
법률 전문가	모함마드 레자 알리자데(Mohammad Reza Alizadeh) 호자톨레슬람 무함마드 살리미(Hojjat ol-Eslam Muhammad Salimi) 호센인 알리 아미리(Hossein Ali Amiri) 모흐센 에스마일리 박사(Dr. Mohsen Esmaili) 시야마케 라흐 페이크 박사(Dr. Siyamahe Rah Peik)

자료: 헌법수호위원회(접속일: 2012. 8. 25).

22) 헌법 제93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 승인된 법률에 한하여 국회의원과 헌법수호위원회 6명 법관들의 신임장이 있을 때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총선, 전문가의회 선거 등 모두 세 가지인데, 이들 모든 선거에서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 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1979년 혁명 성공 이후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의 상위 체제로 자리 잡은 정치체제에서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상당수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슬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는 점이었다.²³⁾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당시 최고지도자 호메이니의 명령으로 국가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논란이 되는 법을 심사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는 1989년 개정헌법 11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²⁴⁾

국가정책심의위원회는 최고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헌법수호위원회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이슬람 법이나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된다. 또한 국가정책심의위원회는 최고지도자가 제시한 안건을 논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여타 책임도 수행한다. 국가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한다. 국가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은 위원들이 제정하고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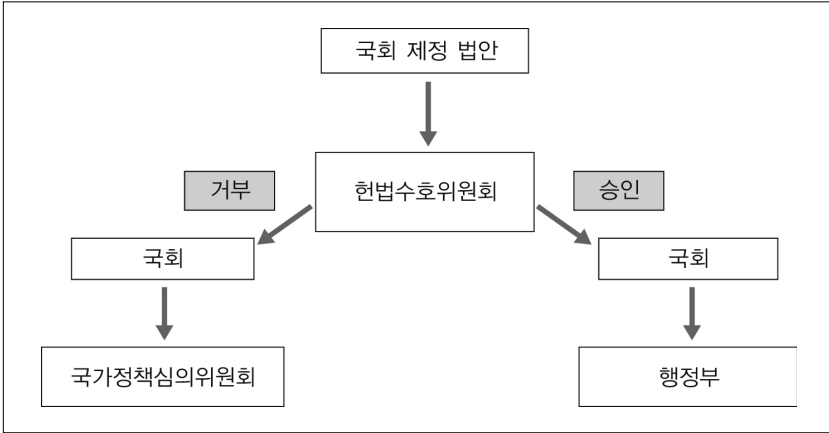
국가정책심의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수호위원회와 국회의 법률해석 충돌을 조정할 뿐 아니라 최고지도자가 제시한 안건도 논의한다. 위원은 모두 최고지도자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다. 위원은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위원 12명과 그 밖의 개인위원 36명으로 나누어진다.

심의 안건이 헌법수호위원회와 국회 간 법률문제라면, 기관위원인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학자 6인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기관

23)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거부한 법률이 2대 국회(1984~88)에서는 27%, 3대 국회(1988~92)에서는 40%에 달했다. Shirazi(1997), p. 92; Buchta(2000), p. 59 참고.

24) 국가정책심의위원회는 이란어로 Majma-e Tashkhis-e Maslahat-e Nezam 이라고 함(영어로는 The Expediency Discernment Council of the System 또는 간단히 Expediency Council이라고 함).

그림 2-3. 국회 제정 법안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위원이 아니라 개인위원은 위의 규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관위원이면서 개인위원인 아흐마드 잔나티는 기관위원으로는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위원 자격으로는 가능하다.

헌법 111조는 최고지도자직이 꺾여서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학자 등 총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고지도자 직무를 대행하는데, 국가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학자를 선출한다. 최

- 1항. 행정부와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
- 3항. 모든 이슬람법 및 헌법 해석
- 5항. 전쟁 및 종전 선언
- 6항. (라) 참모총장 임명, 면직 및 파면
 - (마) 군 총지휘관 임명, 면직 및 파면
 - (바) 각 군사령관 임명, 면직 및 파면
- 10항. 대법원 판결 또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시 해임

표 2-9. 국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명	
위원장	아야톨라 하세미 라프산자니(Ayatollah Hashemi Rafsanjani)	
비서	모흐센 레자이(Mohsen Rezaei)	
기관위원 (12명)	1.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의 각 수장 - 3명 2.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학자 - 6명 3. 국가최고안보위원회 비서 - 1명 4. 논의될 문제와 관련된 부서의 장관이나 기관장 - 1명 5. 논의될 문제와 관련된 국회내 위원장 - 1명	
개인 위원 (36명)	이슬람 법학자 (14명)	하세미 라프산자니(위원장), 아흐마드 잔나티, 바에즈 타바시, 아미니 나자프 아바디, 세예드 마흐무드 하세미 사흐루디, 모바헤디 케라마니, 알리 아크바르 나테크누리, 하산 사네이, 하산 로우하니, 도르리 나자프 아바디,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마흐무드 모함마디 에라끼, 골람레자 메스바히 모가담, 마지드 안사리
	일반 (22명)	골람레자 아가자데, 알리 아가 모함마디, 모함마드 자바드 이라바니, 모함마드레자 바호나르, 골람알리 하다드 아델, 하산 하비비, 다부드 다네슈 자파리, 파르비즈 다부디, 모흐센 레자이(비서), 모함마드호세인 샷파르하란디, 하비볼라 아스가르 오울라디, 모함마드레자 아레프, 모함마드 포루잔데, 세예드 하산 파루즈아바디, 알리 라리자니, 호세인 모자프르, 호세인 모함마디, 세예드 모스타파 미르 살림, 세예드 모르타자 나바비,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 사데그 바에즈자데, 아흐마드 바히디

자료: 국가정책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maslahat.ir>). (검색일: 2012. 3. 20)

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 110조 중 다음 항은 국가정책심 의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다.

한편 헌법 176조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할 때 최고지도자는 국가정책심 의위원회와 협의한 후 대통령에게 개정에 관한 칙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헌법 개정을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국가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이 참여한다.

국가 중대사는 최고국가안보수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²⁵⁾ 헌법 176조 에 따라 대통령이 관장하는 이 위원회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승인한 정책

25) Shora-ye Ali-ye Amniat-e Melli(National Security Council).

표 2-10. 최고국가안보수호위원회 구성

위원장	행정부 수장(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위원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데그 라리자니 참모총장: 세예드 하산 피루자바디(비서) 예산 및 정책 책임자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대표 2인 외교·내무·정보부 장관 현안과 관련된 부서 장관 각 군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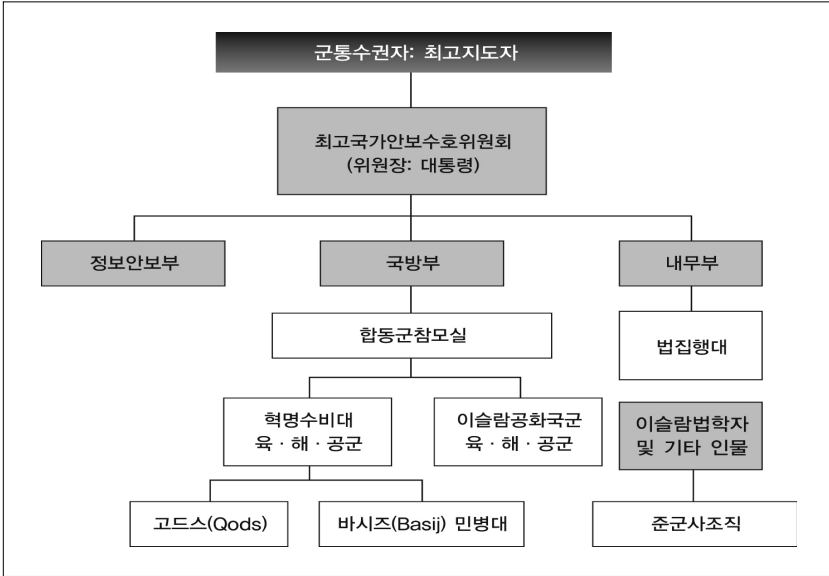
자료: 이란 헌법.

중 국가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치·사회·정보·경제 문제를 조율하며, 국내외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의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을 이용한다. 최종 결정 사항은 최고지도자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산하에 국방 소위원회나 국가안보 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의장은 대통령 또는 최고지도자가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규모나 조례 등 관련 사항은 모두 최고국가안보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의 군사조직은 이슬람공화국군(정규군)과 혁명수비대(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로 양분되며 모두 육·해·공군을 운용한다. 두 군사조직 모두 최고지도자가 통솔한다. 이슬람공화국군은 팔레비조의 군조직을 계승한 것이고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²⁶⁾ 혁명수비대는 이란 전역에서 자원자 중심으로 구성된 바시즈(Basij) 민병대를 통제하는데, 바시즈는 1979년 11월 호메이니의 지시로 창설되었다. 혁명수비대의 최정예부대는 고드스(Qods) 부

26) 일반적으로 혁명수비대 고위급 장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규군의 고위급 장교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달승(2010, p. 110) 참고.

그림 2-4. 군 체계도



자료: Wehrey *et al.*(2009), p. 9, Figure 2.1 참고.

대로 이슬람 혁명을 전파하는 특별 임무를 띠고 국내외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내무부는 마약, 종교적 도덕 범죄, 부패 등을 다루는 법 집행대를 유지하고 있다.

3. 이란 헌법의 특징 및 역할

이란 국민은 혁명 직후인 1979년 3월 30~31일 양일간 실시된 “이슬람 정부를 위해 왕정을 폐지해야 합니까?”라며 새로운 정부 형태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98%라는 높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 호메이니는 이슬람공화정 수립을 선포하면서 ‘신이 다스리는 첫날’이라고 말

했다. 이어 혁명위원회는 6월 18일 헌법초안을 완성하였고, 8월 3~4일 이틀 동안 선거를 치러 헌법을 심의할 73명의 전문가의회를 구성하였다.²⁷⁾ 전문가의회는 11월 15일 호메이니의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바탕을 둔 헌법을 심의한 후 국민투표에 부쳤고, 12월 2~3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98.2%의 지지를 받아 총 14장 175조로 구성된 이슬람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였다.²⁸⁾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헌법을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중의 하나는 최고지도자 선출 문제였다. 이는 당시 호메이니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중차대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이원적 행정부 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명령체계가 단일화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정치적 갈등의 소지도 많아 총리직 존폐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4월 24일 호메이니는 2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에 착수하였고,²⁹⁾ 1989년 7월 18일 혁명 직후의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총 14장 177조로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헌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총리직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더 많은 행정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투표와 함께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라프산자니가 선출되어 새로운 헌법

27) 헌법 초안에는 이슬람법학자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슬람법학자들이 항의하였고, 헌법을 심의할 전문가의회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7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이슬람법학자였다는 점에서, 이란 헌법이 오늘날처럼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근간을 두게 된 계기가 바로 전문가의회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8) 호메이니의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이 이란 헌법에 미친 영향을 보려면 Saffari(1993), pp. 64-82 참고.

29) 헌법개정 위원으로 호메이니가 20명, 국회가 5명 임명하였다.

에 따라 행정부 수반이 되었다.³⁰⁾ 또한 헌법 8장 109절 국가원수인 최고지도자가 되는 조건에서 마르자(Marja)라는 최고 권위의 이슬람법학자 자격이 삭제되었다. 마르자는 마르자에 타글리드(Marja-e Taqlid)의 준말로 모든 사람이 기꺼이 따라야 할 전형적인 모범이라는 의미다. 시아 이슬람 전통에서 마르자는 법학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며 이슬람법 해석의 최고권위자다. 그러나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기관은 없고, 위대한 법학자에게 자연스럽게 붙는 명예로운 칭호라고 볼 수 있는데, 호메이니는 당시 마르자였다. 마르자라는 자격 요건이 삭제되면서 최고지도자의 자격 조건이 이슬람법과 일반법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공명정대한 이슬람법학자로 완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의회를 최고지도자 선출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기 전인 1989년 6월 3일에 호메이니가 사망하였다. 이에 전문가의회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선출하고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임시 최고지도자로 간주하였다.

당시 마르자가 아니었던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가 된 것은 발리에 파기흐(Vali-ye Faqih), 즉 법학자의 수장이라는 헌법상의 직위와 이슬람법 최고 권위자인 마르자의 분리를 의미한다. 비록 1994년 대(大)아야톨라 아라키(Ayatollah ol-Ozma Mohammad Ali Araki, 1894~1994)가 죽은 후 시아파의 여러 학자들이 하메네이를 마르자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약 5년간 최고지도자가 마르자가 아닌 상태가 지속되

30) 당시 총리직 폐지는 정치투쟁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국회의장이었던 라프산자니는 강경파 총리 후세인 무사비의 권력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6명의 국회의원이 연대하여 최고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에게 최고 종교지도자 선출 및 행정부 최고권력 개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상 최고지도자 자격 조건에서 마르자가 빠져 있다고 해도 시아 무슬림 전통에서 마르자가 아닌 이슬람법학자가 이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될 당시 학문적으로는 아야톨라에 미치지 못하는 호자틀레슬람에 불과하였던 하메네이에 대하여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이해할 만한 현상이었다.

마르자 조항 삭제와 함께 개정헌법은 헌법수호위원회와 국회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국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조항을 새로이 삽입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슬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의회로 회송되었기 때문에 입법 효율이 심각하게 저하될 뿐 아니라 양 기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관이 국가정책심의위원회다.

이슬람법학자의 현실 정치 참여를 확고히 규정하는 이란 헌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맘의 부재라는 현실에서 그 대리인을 이슬람법학자로 상징하는 시아의 독특한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근간을 두었다. 이란 헌법은 서문에서도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이 이슬람의 기본 이념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이슬람법학자의 책임 아래 각 국가기관들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중동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 헌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¹⁾ 그러나 이란 헌법처럼 구체적으로 정부의

31)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보면, 이집트 헌법은 2조에서 이슬람이 국교요, 이슬람 법의 원리가 입법의 원천이라고 규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기본법 1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왕국을 이슬람 국가로 규정하고 종교는 이슬람, 헌법은 지고하신 알라의

목표를 신의 세계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 두는 헌법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더 나아가 이란 헌법은 단순히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면서 신의 세계에 좀 더 근접하는 과정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표방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 헌법이 이슬람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헌법은 1906년 이란 헌법과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 헌법은 이슬람법학자들의 법과 함께 근대 법치주의를 수용하였다. 먼저 이란헌법이 이슬람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 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조. 이슬람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1.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이슬람법은 신으로부터 유래하고, 신은 전지전능하다.
2. 신의 모든 계시는 이슬람 율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신만이 인간을 창조하고 부활시킨다.
4. 신은 공명정대하다.
5. 이맘위(位)와 성직자는 이슬람 혁명을 지탱하는 축이다.
6.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신으로부터 기인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성스러운 꾸란과 이슬람 전통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
 - 나. 국민은 인격 완성을 위하여 모든 지식, 기술, 선각자들의 경험을 이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다. 반독재, 반제국주의, 정의, 정치·사회·경제적 독립 그리고 독자적 문화와 국민의 단결이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다.

근대 법치주의의 관점은 56조 및 5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²⁾

경전과 사도의 순나라고 밝히고 있다.

32) 이 외에도 다음 조항에서도 법치주의 정신을 볼 수 있다: 헌법 1조, 6조, 78~83조, 87~89조, 159조, 161조, 166조, 169조.

제56조.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의 사법권은 신께 있으며 신만이 인간을 그의 운명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누구도 이 신의 권리이자 인간이 가진 권리를 박탈할 수 없으며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신의 권리를 다음 편에 나오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행한다.

제59조. 정치·사회·경제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민투표는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기가 있어야 실시된다.

또한 이란 헌법 4조에 따르면 이슬람 원칙이 헌법과 법률에 적용되고, 이슬람법학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며, 국가의 모든 공권, 세금, 경제, 행정, 문화, 정치, 정책 등이 이에 따른다고 한다. 반면 이란 헌법 6조에서는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등 선거로 표출되는 민의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슬람법이 헌법 6조에서 제시된 자유로운 국민 여론의 표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슬람 1,40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슬람법학자들은 항상 재야에 머물면서 정권에 참여하기를 극도로 꺼렸다. 왜냐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³³⁾ 실제로 이슬람법학자가 현실정치 전면에 나서는 현재의 이란 체제는 이슬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실험이다. 이란에서 이슬람법학자 통치체제에 대한 반발이

33) 이슬람법학자들이 정권으로부터 법관으로 임용되기를 꺼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787년 오늘날 튀니지 카이라완(Qairawan)에서 압둘라 이븐 파루크는 법관직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사원 꼭대기로 끌려 올라갔다. 그는 거기에서 법관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떨어뜨리겠다는 군인들의 위협을 받고서야 어쩔 수 없이 법관직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소송인이 오자 그는 매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예로 848년 같은 지역에서 법관으로 임명된 법학자 사흐눈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약속받았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감히 축하 인사를 건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법관으로 임명된 후 귀가하여 딸 카다지에게 “오늘 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호메이니가 후계자로 여겼던 몬타제리를 비롯해서 여러 이슬람법학자들이 호메이니의 정치 참여 노선에 반대하여 이슬람법학자가 영적인 조언자로만 남아야지 현실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4.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1979년 왕정이 붕괴하고 현재까지 30여 년간 이란 사회의 통치 엘리트 중심축은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이다.³⁴⁾ 호메이니는 이슬람 혁명에 성공한 이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라 정부 및 군대 요직에 이슬람법학자들을 임명하고 혁명 직후와 이란·이라크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사회 안정을 주도하였다. 이슬람법학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지만 이슬람법학자들은 이슬람 혁명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혼인관계 및 사제관계,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치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⁵⁾ 가족 및 혼인 관계로 묶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자 현 국가정책심의위원회 비서인 모호센 레자이(Mohsen Rezai)는 호메이니 증손녀의 시아버지다. 현 사법부 수장인 아

34) Thaler *et al.*(2010), pp. 52~63 참고.

35) 세속적 엘리트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이슬람법학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불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집권 이래 증가하고 있다.

야톨라 사데그 라리자니(Ayatollah Mohammad Sadeq Larijani, 1960~) 대법원장의 큰형은 법무부 인권담당관 모함마드 자바드 라리자니이고, 작은형이 현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대아야톨라 미르자 하셈 아몰리(Mirza Hashem Amoli, 1899~1993)이며, 그의 제자중한 사람인 아야톨라 모함마드 야즈디는 현재 헌법수호위원이다. 또한 이란 최초의 비이슬람법학자 출신 국회의장이자 현 국회의원의원 하다드 아델(Haddad Adel)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Mojtaba)의 장인이다. 테헤란을 지역구로 둔 현역의원이며 지난 3월 총선에서 국민의 소리 정파를 이끈 알리 모타하리(Ali Motahhari)는 혁명 직후 혁명위원회 의장이었던 아야톨라 모르타자 모타하리(Mortaza Motahhari, 1920~1979)의 아들이며, 그의 여동생은 현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의 아내다.³⁶⁾

이슬람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우제 교육을 거쳐야 한다. 호우제 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이란 종교교육의 최고 중심지 콤(Qom)에는 300여 개의 호우제가 있고, 학생 수는 남학생 7만 명, 여학생 2만 명, 외국학생 1만 명 등 모두 10만 명에 달한다.³⁷⁾ 호우제 교육은 일반 대학교육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고 교육과정도 어렵다. 시아파의 교육은 예언자의 전승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지속되지만, 현실의 호우제 교육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보통 3년 과정으로 이슬람 공부에 필수적

36) 그러나 이처럼 가족관계로 엮었다고 해서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개혁파 무사비의 조모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고모지만, 양자의 관계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우호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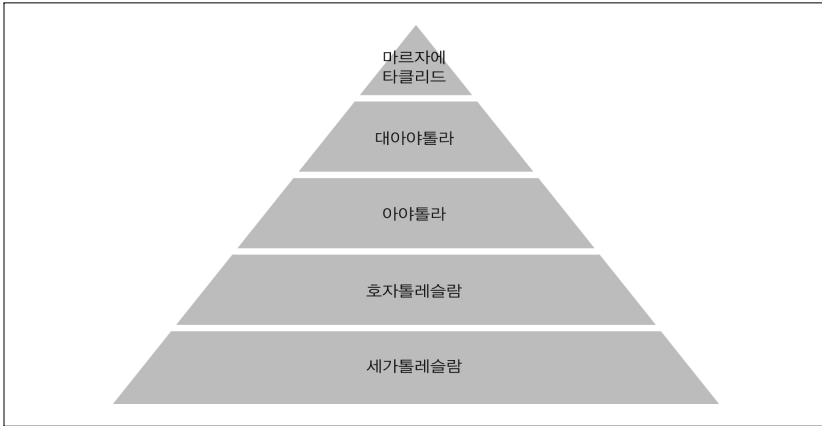
37) 이슬람법학자가 이란 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교학교 학생들은 단순한 학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들은 잠재적인 정치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인 아랍어와 아랍어 문헌들을 학습한다. 2단계 역시 3년 과정으로 이슬람 법학과 여타 관련 학문을 공부한다. 이 단계를 마치면 세가톨레슬람 (Seqat ol-Eslam)이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한다. 3단계 또한 3년 과정으로 이슬람법, 철학 등을 심층적으로 배운다. 이 과정을 마친 학생은 호자톨레슬람이라고 불릴 수 있다. 세가톨레슬람, 호자톨레슬람 등은 모두 명예로운 칭호로 공식 지위는 아니며 또한 대학의 학위처럼 호우제에서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것도 아니다. 호자톨레슬람이라는 칭호로 불리는 법학자는 총선이나 전문가위원 선거 등을 통해서 정부 요직으로 나아갈 기회가 대학교육을 받은 일반 세속적 엘리트보다 많다.

3단계를 마치면 자신이 속한 호우제를 떠나 자신이 배우고 싶은 대아야톨라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보통 이 과정은 5년에서 7년 정도인데, 이슬람법 해석을 심층 연구한다. 지속적인 연구로 학식이 쌓이고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 자신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이슬람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권위 있는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면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존경을 받으면서 아야톨라로 불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 궁극적으로 대아야톨라가 된다. 대아야톨라 중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매우 뛰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고 추종하면 마르자에 타글리드 또는 줄여서 마르자로 불린다.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 역시 현 이란 사회의 통치 엘리트로 권력을 행사한다. 특히 아흐마디네자드 집권 이래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다수 진출하면서 혁명수비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옮긴 나자르(Mostafa Mohammad Najjar,

그림 2-5. 이란의 이슬람법학자 칭호 위계도



자료: 저자 작성.

1936~), 국방부 장관 바히디(Ahmad Vahidi, 1940~), 전 석유부 장관 카제미(Masud Mir Kazemi, 1960~), 현 석유부 장관 카세미(Rostam Qasemi, 1964~) 등이 대표적인 혁명수비대 출신이면서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사례다. 더욱이 각 부처 중간관리급 공무원 상당수도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혁명수비대의 지향점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 제거에 초점을 두고 군을 재편하여 체제 수호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정부 부처에서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직간접으로 많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 소유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지분을 인수하면서 혁명수비대의 경제 비중은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이란 최고의 공공개발사업 수주회사는 혁명수비대에서 운영하는 하탐몰안비야(Khatam ol-Anbiya 또는 GHORB)

표 2-11. 혁명수비대 관련 주요 기업 및 인물

주요 기업 및 인물	
기업	하타몰안비야(Khatam ol-Anbiya) 세파사드 엔지니어링(Sepasad Engineering Company) 하라(Hara Compamy) 파테르 엔지니어링 연구소(Fater Engineering Institute) 이멘사젠 엔지니어링(Imentsazen Consultant Engineers) 마킨연구소(Makin Institute), 라합연구소(Rahab Institute) 오리엔탈 오일 키시(Oriental Oil Kish) 사헬 엔지니어링(Sahel Consultant Engineering) 오므란 사헬(Omran Sahel), 고르브 누흐(Ghorb Nooh) 가라가헤 사잔데기 가엠(Gharagahe Sazandegi Ghaem)
인물	호세인 살리미(Hosein Salimi):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모르테자 레자이(Morteza Rezaie):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알리 아흐바르 아흐마디안(Ali Akhbar Ahmadian): 부제독, 전 혁명수비대 합참사령관 모함마드 헤자지(Mohammad Hejazi): 전 바시즈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전 고드스 부대사령관

자료: Ilias(2010), p. 10을 참고하여 수정.

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에 재건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후 엔지니어링, 에너지, 광산, 방위산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갔다. 또한 이 회사 출신 인물은 정부 주요직책에 임명되기도 한다. 일례로 현 석유부 장관 로스탐 가세미는 1981년 혁명수비대 군인으로서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전후에는 하타몰안비야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2001년에는 부사령관, 2007년에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전역 후 2011년 8월 입각하였다.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이슬람 혁명 정신의 보전을 추구하는 한편, 다양한 재단(bonyads)을 운영하면서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재단들은 혁명 이전에는 왕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으나 혁명 이후 국유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가족을 위한 조직

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 재단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교통·관광·농업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면세 혜택도 받는다. 대표적으로는 피억압자와 장애인 재단(Bonyad-e Mostaz'afan va Janbazan), 순교자와 퇴역군인 재단(Bonyad Shahid va Omur-e Janbazan), 이맘 레자 재단 등이 있는데, 이 중 피억압자와 장애인 재단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재단은 1979년 3월 호메이니의 지시로 설립되었고, 혁명수비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권 아래 있으며, 자산 규모도 이란 국영석유회사(National Iran Oil Company) 다음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으로는 비정부기구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이사(理事)이면서 재단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현재 사무총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혁명수비대 출신인 포루잔데(Mohammad Foruzandeh)가 맡고 있다.³⁸⁾ 이 재단은 수익의 50%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에, 그리고 나머지 50%는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다. 석유화학, 건설, 농업, 관광, 교통, 호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에텔라트(Ettelat)』, 『케이한(Kayhan)』 등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잠잠 콜라(Zamzam Cola)와 같은 음료업에도 진출해 있다. 재단이 고용하는 인원도 20만 명에 달하고, 사업단위체가 350여 개에 이르며, 총 자산은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³⁹⁾

38) Khalaji(2007) 참고.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아야톨라 아크바르 하세미 바흐라마니(Akbar Hashemi Bahramani, 1934~), 아야톨라 아르데빌리(Ardebili, 1926~), 아흐마드 잘랄리(Ahmad Jalali), 알리 아스가르 마수디(Ali Asghar Masudi), 에자톨라 사하비(Ezzatollah Sahabi). 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rmf.ir> 이다.

39) Ilias(2010), p. 8.

5. 시사점: 향후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이슬람 민주주의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다. 일반적으로 세속적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 비한다면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만, 이를 바티칸(Vatican) 체제와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종교인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하고 종교인이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의 정치체제에서는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갖는 최고지도자를 비롯하여 이슬람법학자가 정치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공화국의 이념에 맞게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슬람 혁명으로 친서구적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공화국으로 출발한 이란의 당면과제는 국가 출범 직후부터 이슬람과 공화국이라는 두 핵심 정체어(政體語)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호메이니 생전에는 지도자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가적 난제가 비교적 큰 문제없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 직후 이라크와 치른 8년 전쟁으로 이슬람과 공화국의 조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호메이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이란은 종교와 정치의 조화를 두고 긴 논란에 휩싸였는데, 주로 최고지도자의 자격요건 문제, 그리고 이슬람체제를 대변하는 세 가지 헌법기관, 즉 최고지도자, 헌법수호위원회, 전문가의회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 간의 균형 문제에 집중되었다.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최고지도자의 자격이었다. 헌법을 개정하여 최고지도자가 반드시 마르자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지만, 호메이니를 승계

한 하메네이가 당시 호자틀레슬람으로 이슬람법학 지식이 아야톨라급에 미치지 못한 것이 분쟁의 화근이 되었다. 호메이니 시절 2인자로 각광받았으나 반호메이니 입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아야톨라 몬타제리는 공개적으로 하메네이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최고지도자 선출을 두고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기 최고지도자가 이슬람법학 지식이나 지도자적 품성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지 못하면 최고지도자 자질을 두고 분란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는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국민직선으로 구성된 전문가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회의 결정이 어긋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최고지도자 자격 문제와 아울러 현재 최고지도자 직위와 관련되어 논란이 되는 사항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권 부재 문제다. 헌법에 따르면 전문가의회가 최고지도자의 능력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헌법 조문일 뿐이다. 사실상 전문가의회가 최고지도자를 감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전문가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면 헌법수호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심사 항목은 높은 수준의 이슬람법학 지식과 아울러 자질인데,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닌 사람이 헌법수호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곧 전문가의회 의원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전문가의회가 최고지도자에 대해 객관적인 감독권을 수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고지도자와 함께 이슬람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헌법수호위원회인데, 이란 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이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⁴⁰⁾ 논란의 초점은 헌법수호위원회가 대선, 총선, 전문가의회 등 국민 직접선거를 관장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헌법수호위원회가 이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후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개혁파는 이러한 헌법수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파 정파들은 헌법수호위원회가 반체제 또는 반정부 성향 인물들의 선거 입후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민의를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헌법수호위원회가 1992년 4대 총선과 2004년 7대 총선, 2012년 9대 총선 등에서 자의적인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보수적 상인계층(bazzari)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성향의 입후보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바 있다.⁴¹⁾ 이에 따라 개혁파는 선거 관리는 헌법수호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선관위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개혁파를 중심으로 이란의 이슬람체제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최고지도자와 전문가의회,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1997년 하타미 대통령 당선 이후 개혁파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보수파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왔다.

40) 개혁파의 정치적 입장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3장과 4장 참고.

41) Ilias(2010)에 따르면 이란의 주요 경제주체를 재단(bonyads), 혁명수비대(IRGC), 민간 부문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주요 계층이 전통적인 대상인으로 바자리(bazaari)라고 불린다. 대상인 계층은 주로 상품 교역으로 이윤을 취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역을 규제하는 정부의 개입에 반대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이란 시장에서의 외국자본과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라 대상인 계층은 주로 상인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수정파를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지도자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간의 불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 직선으로 뽑혔고 서민의 지지가 많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행정부 권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최고지도자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갈등은 간선 이슬람체제와 직선 공화국체제가 통합되어 있는 정치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을 직선 대신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재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3년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대선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개혁파나 반정부 성향 시민들의 반발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핵개발 문제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대선 방식 변화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1. 주요 정치세력의 구분
2. 2012 총선을 둘러싼 주요 정파별 동향
3. 핵 개발에 따른 국내외 정치 동향
4. 시사점: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



1. 주요 정치세력의 구분

1989년 호메이니 사후 이란의 정가는 20여 년 동안 다양한 이합집산을 거치면서 여러 정치세력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이란의 정치세력을 정책 관점에서 세밀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란에는 정강정책을 지닌 정당이 민의를 대변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체제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이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나 대통령 선거가 주로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고, 이는 결국 확고한 정치 이념을 지닌 세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본 장에서는 현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정치세력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로 양분하고,⁴²⁾ 이 두 파의 중간지대로 라프산자니의 실용주의 노선을 살펴보고자 한다.⁴³⁾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수파는 이슬람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스스로 ‘원리주의자(Osoulgara, Principlist)’라고 부른다. 개혁파는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란어 ‘에슬라흐 탈라브(Eslah talab)’에서 나온 말이다. 다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란의 정치체제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 체제와 공화국체제의 통합이라고 본다면 보수파는 이슬람체제, 개혁파는 공화국체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 두 정치세력은 모두 현 이슬람체제를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개혁파 지도자 하타미에 따르면, 보수파의 이슬람 해석은 개혁파에 비해

42) 여기에서 보수파는 1980년대 무사비 정권을 지지하던 보수파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보수적 상인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보수파를 말한다. 제4장 참고.

43) 라프산자니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퇴임 이후 하타미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의 입장에 가까워졌다.

정직되어 있다. 즉 보수파의 이슬람 해석보다 개혁파의 해석이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라고 한다.

각 정파의 정치적 주장을 통해 보수파와 개혁파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헌법수호위원회의 기능과 언론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수파는 대체적으로 정치시스템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개혁파는 헌법수호위원회가 권한이 너무 크고 폐쇄적이며,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출마자를 심사하여 자격을 제대로 갖춘 피선거권자의 입후보마저 막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헌법수호위원회의 입후보자 심사 기능을 폐지해야 하고,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만일 입후보자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판결을 따라야 하고, 헌법수호위원회는 스스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파는 언론의 자유가 더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각 정파의 주요 인물과 조직을 중심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보수파

보수파는 현재 이란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원리파라는 이름 아래 결집하고 있다. 핵심 주축은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RM: Jame'e-ye Rowhaniyat-e Mobarez)⁴⁴ 고품 종교학교 교수연합회(Jame'e-ye Modarresin-e Howze-ye Elmi-ye Qom)로 이루어져 있다.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는

44) 영어 번역어로는 Combatant Clergy Association이라고 한다.

1977년 호메이니 지지자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당시 하메네이, 모타하리(Morteza Motahhari), 베헤쉬티(Mohammad Beheshti), 바호나르(Mohammad Javad Bahonar) 등이 주축이 되었다. 이들은 문화를 통해 왕정을 폐지하는 주장을 펼쳤고, 4대 및 5대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었다. 고풍 종교학교 교수연합회는 이란 시아파의 교육중심지 고풍에 있는 종교학교 교수들의 모임으로 현재 대표는 전 대법원장 아야톨라 모그타다이(Ayatollah Moqtadai)가 맡고 있다.

2012년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보수파는 크게 다섯 정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야톨라 마흐다비 카니 전문가의회 의장과 아야톨라 모함마드 야즈디(Ayatollah Mohammad Yazdi)가 이끄는 통합원리전선(Unity Front, Jebhe-ye Mottahed-e Osoulgarayan)이다. 통합원리전선은 2011년 가을부터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원리파를 하나로 묶고자 결성되었다.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 국회 내 원리파 수장인 콜람 하다드 아델, 테헤란 시장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등이 이 정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정파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는데, 입후보자 명단의 가장 큰 특징은 혁명수비대 및 바시즈 민병대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파는 서구 언론에서 초강경파로 불리는 전문가회의 의원 아야톨라 메스바흐 야즈디(Ayatollah Mohammad Taqi Mesbah Yazdi, 1934~)가 정신적 수장인 ‘이슬람혁명 영속전선(Jebhe-ye Paydari-e Enqelab-e Eslami, Islamic Revolution Durability Front)’이다. 이 정파는 자신들의 보수적 정치사상이 고풍의 두 종교지도자 모임의 가르침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⁴⁵⁾ 테흐라니(Morteza Agha Tehrani)가 사무총장이고, 아흐마

디네자드 정부에서 보건부 장관을 지낸 란카라니(Kamran Baqeri Lankarani)가 대변인이다. 또한 전 내무부 장관이며 아흐마디네자드의 오랜 동료인 억만장자 사데그 마흐술리(Sadegh Mahsouli)가 이 정파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파에는 2003년 아흐마디네자드가 테헤란 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정치를 함께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대변인을 맡은 란카라니처럼 아흐마디네자드가 해고한 고위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적으로 아흐마디네자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흐마디네자드의 사돈이자 최측근인 마샤이(Esfandiar Rahim Mashai, 1960~)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다.

셋째 정파는 위 두 정파에서 거부당한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자 현 국가정책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인 모흐센 레자이가 구성한 ‘이슬람혁명 저항전선(Jebhe-ye Istadegi-e Enqelab-e Eslami, Steadfastness Front)’이다. 통합원리전선이나 이슬람혁명 영속전선보다 세력도 미약하며, 정치적 노선도 상대적으로 온건보수 성향이다. 모흐센 레자이는 2009년 대선후보로서 아흐마디네자드에 맞서기도 하였다. 전문가의회 의원 세예드 마흐무드 알라비(Seyed Mahmud Alavi) 등이 소속되어 있다.

넷째 정파는 국민의 소리(Jebhe-ye Seda-ye Mellat, The Voice of the Nation)로 반아흐마디네자드 입장인 알리 모타하리(Ali Mottahari, 1957~)와 하미드레자 카투지안(Hamidreza Katouzian, 1960~)이 결성하였다. 국민의 소리는 통합원리전선에 끼지 못하였으나 아흐마디네자드에 비판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정파로 알리 압바스푸르(Ali Abbaspur)와 같은 현역

45)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ame'e-ye Rowhaniyat-e Mobarez)와 곶 종교학교 교수연합회(Jame'e-ye Modarresin-e Howze-ye Elmi-ye Qom).

의원파 하산 가푸르 파르드(Hassan Ghafuri Fard) 전 고등교육부 장관, 알리 레자 마흐주르(Ali Reza Mahjur) 노총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는 아흐마디네자드의 최측근 마샤이(Esfandiar Rahim Mashaei, 1960~)가 결성한 유일신과 정의전선(Jehbe-ye Towhid va Adalat, Monotheism and Justice Front)을 들 수 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원리파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행정부 요직에 이슬람법학자가 아닌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하고, 최고지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원리파의 주요 인물들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그는 원리파 중에서도 강경원리파로 분류되는데, 대통령 임기를 채 일 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원리파 내 반대파의 공격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원칙 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populist)로 불리기도 한다.

나. 개혁파

보수파와 맞서는 개혁파는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MRM: Majma-e Rowhaniyun-e Mobarez)⁴⁶과 곰 종교학교 교수연맹(Majma-e Modarresin-e Howze-ye Elmi-ye Qom)을 주축으로 활동한다. 현재 전자는 하메네이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알리 아크바르 모흐타샤미푸르(Ali Akbar Mohtashamipur)가, 후자는 아야톨라 바야트(Ayatollah Bayat)가

46) 보수파의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와 개혁파의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은 페르시아어 표기상 한 단어만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하다. 우리말로로는 동일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차이를 두기 위해 편의상 연합회와 연맹으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의 영어 표기는 Combatant Clerics League(또는 Association of Combatant Clerics)이다.

이끌고 있다.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의 주요 인물로는 카루비(Mehdi Karroubi)와 하타미를 들 수 있다.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은 이슬람 공화당의 해체 이후 앞서 보수파 조직으로 언급한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에서 분리하여 1988년 3월 독자적으로 구성하였다. 초기에는 개혁파의 주장보다는 이슬람 혁명의 수출과 국가통제 경제시스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하타미를 중심으로 종교지도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과 개인의 자유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파가 세속주의나 서구식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현 이란의 정치체제를 존중한다. 다만 최고지도자의 권한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파는 이에 대해 개혁파가 최고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더 나아가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7년 하타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보수파와 개혁파 간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가 집권하면서 정국은 보수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파는 2012년 3월 총선에서 카루비와 무사비의 가택연금에 항의하여 총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타미는 체제 내 개혁을 주장하면서 개혁파의 총선 참가를 요청함에 따라 개혁파 내부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하타미는 2013년 대선을 앞두고 최우선 과제로 개혁파 지도자들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를 들고 있다.

다. 중도실용파

보수파와 개혁파의 중간지대에 라프산자니의 중도실용파가 있다. 1989~97년 기간에 대통령직을 연임한 라프산자니는 지난 2005년 대선에

직접 참여하여 1차 투표에서 1등을 기록했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아흐마디네자드에 뒤졌고, 2009년 대선에서는 직접 참여하는 대신 개혁파를 간접 지원하였다. 라프산자니의 정파는 그가 대통령 재직 시절 함께했던 실용파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1996년 만든 이란 건설의 활동가(Kargozaran-e Sazandegi-ye Iran, The Servants of Construction)다. 이 조직은 『카르고자란』이라는 일간지를 갖고 있었지만 2009년 1월 폐간되었고, 2012년 총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 정파의 주요 인물은 카르바쉬(Qolamhossein Karbashi), 나자피(Mohammad-Ali Najafi) 등을 들 수 있다.

라프산자니는 대통령 재임시절 보수파와 실용파 인사들을 두루 중용하였고, 정치적 자유보다는 전후 재건과 경제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현재도 보수파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라프산자니의 정치 성향은 강경원리파 일변도의 아흐마디네자드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개혁파 중심의 하타미와 크게 대비된다. 이에 따라 하타미와 아흐마디네자드의 자기 정파 중심적 정국 운영이 보수파와 개혁파 간 갈등을 고조시켰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2. 2012 총선을 둘러싼 주요 정파별 동향

가. 2009 대선 이후의 동향

2009년 6월 10대 대통령 선거 결과 강경보수파의 아흐마디네자드가 개혁파의 무사비를 62.6%의 득표율로 누르고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후 개혁파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크게 일어났지만 결국 하

표 3-1. 2009년 대선 투표 결과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아흐마디네자드	24,527,516	62.63
미르 호세인 무사비	13,216,411	33.75
모흐센 레자이	678,240	1.73
메흐디 카루비	333,635	0.85
유효표 계	38,755,802	98.95
무효표	409,389	
총투표수	39,165,191	100
투표율	85 %	

자료: 이란 내무부 홈페이지(<http://moi.ir>). (검색일: 2012. 3. 1)

메네이의 지지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현재는 보수파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대선 이후 주요 정파별 동향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정부 요직에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5년 이래 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해온 혁명수비대가 2009년 아흐마디네자드의 재선으로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장관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옮긴 모스타파 모함마드 나자르(Mostafa Mohammad Najjar, 1936~), 국방부 장관 아흐마드 바히디(Ahmad Vahidi, 1940~), 석유부 장관 마수드 미르 카제미(Masoud Mir Kazemi, 1960~) 등은 대표적인 혁명수비대 출신이다. 각 부처의 중간관리급 공무원 역시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반면 이슬람법학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대선이 있기 전에 이미 친아흐마디네자드 인사인 압바스 팔리즈

다르(Abbas Palizdar, 1968~)가 부패한 이슬람법학자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의 공감을 크게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 장관들 중에서는 호자톨레슬람 헤이다르 모슬레히(Hojjat ol-Eslam Heidar Moslehi) 정보부 장관이 유일한 이슬람법학자다.

둘째 특징은 2009년 대선 이후 하메네이와 아흐마디네자드의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결정적 이유는 아흐마디네자드의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 방식 때문이었다. 즉 아흐마디네자드는 최고지도자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정보부 및 외교부 장관직을 최고지도자의 의향도 묻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경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반대에도 아흐마디네자드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사돈 관계인 마샤이를 제1부통령으로 임명하였다.⁴⁷⁾ 이후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아흐마디네자드는 그의 정신적 수장인 메스바흐 야즈디와 하가니(Haqqani) 학교 인맥과 함께 혁명수비대 인맥을 주축으로 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와 대척점에서 있거나 관계가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사람들은 하메네이 측근들로서 주로 사법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수장 임명권이 최고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 정보부 장관인 호자톨레슬람 콜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Hojjat ol E-slam Qolam Hossein Mohseni Ejei, 1956~)는 아흐마디네자드가 대선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 해임하였지만, 하메네이가 그를 다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또 반아흐마디네자드 인사로 알려진 호자톨레슬람 모함마드 사데그 라리지아니를 사법부 수장으로

47) 2008년 아흐마디네자드의 아들과 마샤이의 딸이 결혼하였다.

로 임명하였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러한 정파간 대립 속에서 빈곤층 국민과 혁명수비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그는 부정선거 시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가난을 이겨낸 입지전적 인물이면서 최초의 비이슬람법학자 출신 대통령이 되었고 이슬람법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종교적 상징을 활용하면서 서민층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종교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흐마디네자드의 지지기반은 향후 권력투쟁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2012 총선의 특징 및 결과

3월 2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2012 총선은 현재 집권하고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보수파 내부의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표출된 선거였다. 이에 따른 2012 총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총선을 거부한 개혁파와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 사이에 상호 비난이 이어졌다. 정부는 대표적인 보수파 매체인 『케이한(Kayhan)』을 통해 개혁파의 선거 거부는 서구의 음모에 따라 이란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2009년 대선 불복보다도 더 심한 매국 행위라고 주장하였다.⁴⁸⁾ 또한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다면 국내적으로는 현 집권 세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대외적으로는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표율 제

48) Savyon and Mansharof(2012).

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예를 들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가 하면, 투표율이 50% 아래로 나오면 미군이 공급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기도 했다.⁴⁹⁾ 또한 이란 관영 통신은 모함마드 레자 야즈디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선거 참여는 적들의 다음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⁰⁾ 그 결과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공식 집계된 투표율이 64.4%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특징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사이의 정치 갈등이 총선 전후 과정을 거쳐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아흐마디네자드 지지자인 호세인 파다이(Hossein Fadai) 이슬람혁명 수호자협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아흐마디네자드 측 인물들은 ‘사악한 물결’로 낙인 찍히고 헌법수호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입후보 신청자 중 45%가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⁵¹⁾⁵²⁾ 또한 의회는 경제난 책임을 물어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7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3월 14일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비난성 질문에 답해야 했다.

총선 결과를 보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보수파의 승리인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이에 대해 정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선거

49) *Ibid.*

50) *Ibid.*

51) Radd-e Salaniyat-e 600 namzad jarayan enherafi(2012).

52) 5,395명이 입후보 신청을 했으나 헌법수호위원회는 3,444명의 신청자에게만 입후보자격을 승인하였다.

에서 주축이 된 두 정파는 통합원리전선과 이슬람혁명 영속전선이었다. 이 두 정파는 모두 최고지도자를 지지하는 보수파지만 통합하지는 못했다. 다만 양 진영에 모두 이름을 올린 입후보자들이 있었다. 통합원리전선의 선거 구호는 ‘최고지도자 아래 합리성과 영성, 정의와 개발’이었고, 모두 230명의 후보를 냈다. 이슬람혁명 영속전선은 ‘최고지도자를 축으로 합리성, 영성 그리고 정의’를 선거구호로 채택하였고, 180명의 후보자를 냈다. 당선 결과는 통합원리전선이 65석으로 가장 많았고, 이슬람혁명 영속전선은 25석을 차지했다. 양 정파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당선된 의석수는 61석에 달했다. 따라서 두 보수정파의 의석수는 모두 151석으로 전체 의석수 290석의 52.1%에 달했다.

반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의 여동생 파르빈 아흐마디네자드, 최측근 마사이 등이 낙선하는 등 대통령 지지 정파가 많은 의석을 거두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슬람혁명 영속전선에는 친아흐마디네자드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98명 중에서도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2 총선에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참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3) 이란 총선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란의 특수한 선거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에는 정당제도가 없고 입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치파벌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67개 정파가 선거에 참여하였고, 테헤란에서는 24개 정파가 경쟁을 벌였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정파에 입후보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어 정파와 인물 간 정치 성향에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표 3-2. 주요 정파별 2012 총선 결과

정파	의석수
통합원리전선	65
이슬람혁명 영속전선	25
통합원리전선 + 이슬람혁명 영속전선	61
기타 보수 정파	15
개혁파	21
무소속	98
소수 종교인	5
총계	290

자료: Davari(2012).

3. 핵 개발에 따른 국내외 정치 동향

가. 핵 개발 배경 및 과정

이란의 핵 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의 논란거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반정부 망명단체인 이란 저항국가위원회가 이란 내 비밀 핵시설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이때 알려진 시설들이 나탄즈 연료농축 공장과 아락 중수공장 및 원자로인데, 이 두 시설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시설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의심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부셰흐르(Bushehr) 원자력발전소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나탄즈 시설은 연료 공장치고는 규모가 너무 크고, 부셰흐르 원자력발전소는 중수가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아락에 중수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수는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은 문명 간 대화라는 의제를 설정하여 서방 국가들과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부시 행정부는 9·11 사태 이후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선언하고 유사시 핵무기 사용 대상국가에도 포함하였다. 이후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핵 개발 문제가 국내외 정치적 논의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본 소절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핵 개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란의 핵 개발은 1957년 3월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평화원자력 프로그램(Atoms for Peace)'의 일환으로 이란과 민간 핵 협력협정(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s)을 맺고 핵 기술과 농축 우라늄 제공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67년에는 테헤란 원자력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이 센터는 미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5메가와트 연구용 원자로를 구매하고 '테헤란 연구원자로'로 명명하였다. 이듬해인 1968년 7월 이란은 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하였고, 의회는 이를 1970년 2월에 비준하였다. 이로써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74년 5월 이란은 IAEA와 핵 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안전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해 11월 이란은 독일 지멘스(Siemens)의 자회사인 크라프트베르크 유니온(Kraftwerk Union)과 부세 흐르에 1,200메가와트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인 1975년 8월 공사가 시작되었다. 프랑스 프라마툼(Framatome)사와도 950메가와트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다르호빈(Darkhovin)에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팔레비 샤의 목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20년 내에 2만 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었다.⁵⁴⁾

그러나 1974년 5월 인도의 성공적인 핵 실험으로 이란의 핵 개발은 위

54) Sahimi(2004).

기를 맞았다. 미국이 이란도 인도처럼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1974년 6월 23일 샤가 프랑스 『레쟁포르마시옹(Les Informations)』과 한 인터뷰에서 이란 역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⁵⁵⁾ 결국 1975년 3월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총 8,0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여덟 개의 원자로를 150억 달러에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국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도입이 지체되었다. 미국은 이란 왕정이 위기에 봉착하면 핵 기술과 시설이 반정부 세력이나 외국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떨어져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미 정보당국은 이란을 강국으로 만들려는 샤의 야심에 비추어보았을 때 만일 샤가 1980년대에도 살아 있고,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이란도 반드시 그러한 경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미국은 가능한 한 재처리 시설 건설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란은 이를 수용하였다. 결국 이란이 플루토늄이나 다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사용 후 남은 연료 재처리에 미국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양국 간에 새로운 핵 협정이 1978년 7월에 체결되었다. 미국은 이란을 핵에 관한 한 최수혜국으로 우대하면서도 이란의 핵 야심은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55) 샤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다른 비핵 국가들이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한, 이란 역시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고, 핵무기 경쟁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주이란 미국 대사(Richard Helms)는 본국에 보내는 전문에서 이란의 핵무기 비소유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핵 개발 과정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변동으로 사실상 정지되었다. 당시 최고지도자 호메이니는 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구에 의존하여 현대화를 이루려던 샤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호메이니의 통치철학은 ‘동양도 서양도 아닌 오로지 이슬람 공화국(Na Sharq, Na Gharb, Faqat Jomhuri-ye Eslami)!’이었다. 정치 격변기의 혼란을 피해 조국을 떠나는 핵 과학자들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샤가 정성을 들였던 이란 원자력기구(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설비가 파괴되고,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멈추어 섰다.⁵⁶⁾

그러나 이라크와 벌인 8년 전쟁에서 현대식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이란 정부는 핵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에 이란 정부는 부세흐르와 다르호빈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에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서구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이란 정부는 독자적인 핵 개발 재개를 위해 1984년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에스파한에 핵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85년경에는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 칸 박사로부터 핵기술 개발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⁵⁷⁾ 1987년에는 파키스탄과 협약을 맺고 39명의 이란 핵 과학기술자들이 파키스탄 핵 시설에서 연수하며 기술교육을 받았다.⁵⁸⁾ 또한 아르헨티나로

56) Etemad(1987), p. 214 참고. 호메이니가 핵 발전과 핵무기를 악(惡)으로 보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Coughlin(2010)은 호메이니가 직접 핵개발을 지시하여 1983년 테헤란 북쪽 근교에 핵개발 연구소를 설치하였고, 당시 혁명수비대 모흐센 레자이(Mohsen Rezai) 사령관이 정부로부터 8억 달러의 예산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57) Spector(2007) 참고. 2009년 칸 박사는 자신의 연구팀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Nelson 2009).

부터 550만 달러에 20% 농축우라늄을 제공받기로 하고, 자국 과학자들을 호세 발라세리오(Jose Balaserio) 핵 연구소에 연수교육을 보냈다. 독일이 중단한 부세흐르 원전은 1995년 1월 테헤란에서 러시아와 협약을 맺어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기로 합의하고,⁵⁹⁾ 핵 과학자를 비롯하여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원생을 해마다 러시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용하였다.⁶⁰⁾ 이후 러시아의 부세흐르 원전 건설은 계속 지연되다가 2011년 9월에서야 완공되었다.

나. 주변국의 대응 방향

이란이 핵을 갖는 것에 찬성하는 중동의 정치세력을 굳이 꼽자면 친이란세력인 이라크 시아,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시아 초승달(Shia Crescent)’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⁶¹⁾ 시

58) Vaziri(1986), p. 318.

59) Eisenstadt(1996), pp. 106-107. 이란은 평화적 핵 개발,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1991년 중국과 협약을 맺고 20메가와트 원자로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9월에는 라프산자니가 장쩌민을 만나 330메가와트 친산(Qinshan) 원자로 구매협상을 벌여 1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란은 당시 핵 프로그램을 에스테글랄(독립)이라고 명명하고 2005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중국은 지질 조사까지 마친 후 미국의 강력한 반발과 이란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지체 등을 이유로 핵 프로그램 협력을 포기하였다. 그러자 이란은 러시아의 협조를 받게 되었다. 이란은 1980년대에 러시아로부터 핵기술 원조를 받기로 하였으나 구소련 해체, 공산당 몰락 등 러시아의 정세 변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맺은 것이다.

60) 이란 정부는 미국의 감시와 견제의 눈을 피해 여러 나라에 핵 기술 제공 여부를 타진해 왔다. 이란 정부는 사가 재처리, 플루토늄 생산 등 핵 개발 전 공정을 자국의 힘으로 완성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력 양성을 대단히 중시하여 핵 협력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자국 과학기술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61) 2004년 말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아 초승달이라는 용어는 그 지역의 배후에 이란이 시아 종주국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포되어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시아 무슬림의 급격한 부상을 지켜보는 순니 무슬림 국가들의 불안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의 성공 이래 전 세계로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란 주변의 순니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유전지역에 시아 무슬림이 밀집해 살고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란의 움직임에 늘 위협을 느껴왔다.⁶²⁾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순니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 무슬림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란식 이슬람 원리주의는 시아파라는 소수 종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 여러 부문에서 시아파는 순니파에 비해 열세이다. 이란 역시 중동지역에서는 인구도 많고 군사 강대국이지만 순니 중심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경제 규모 및 군사비 지출 등에서 뒤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현실에서 이란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호메이니는 이러한 점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62)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가와르(Ghawar) 유전, 이라크의 루마일라(Rumaila) 유전, 쿠웨이트의 부르간(Burgan) 유전 등이 모두 시아파 지역에 있거나 또는 이곳에서 생산된 원유가 수출 항구로 가려면 시아파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전들이다. 이란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와하비주의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 진력한 것도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의 시아 무슬림을 자극하는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2011년 바레인 국민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 교체에 고무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곧바로 바레인 왕정 수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도 시아 무슬림의 발흥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이슬람주의 차원에서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최근 2011년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이란의 이슬람 민주주의보다는 온건하고 현실적인 터키의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³⁾⁶⁴⁾ 이란 이슬람 혁명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라크 시아지역도 호메이니 노선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라크의 시아 지도자인 아야톨라 시스타니는 종교지도자의 역할을 정치참여가 아닌 신앙 생활 계도(啓導)에 두며 이란의 정치적 종교지도자들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동 국가들의 우러대로 역내 힘의 균형이 깨져 이란이 지역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종교적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니 무슬림이 지배적인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핵 보유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 역시 이란의 핵 보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터키는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러시아와 이란 두 핵보유국 사이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터키는 제일 먼저 터키·이란 국경 지역을 나토군 기지로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터키의 태도

63) 2011년 10월 텔하미(Shibley Telhami) 교수가 행한 아랍 5개국(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UAE) 대상 여론조사(표본수 3,000개)에 따르면 아랍인은 에르도안 터키 총리를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로 뽑았고(31%), 이집트인에게만 던진 이상적인 국가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터키식 체제가 많은 비중(44%)을 차지하였다. Telhami(2011) 참고.

64) 이란은 아랍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민주화나 아랍의 봄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슬람의 각성(Islamic Awakening, Bidari-ye Eslami)’이라고 부른다.

는 순니 아랍국가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터키도 역시 이란의 핵 보유를 반대하지만 그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지역 안정에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터키는 이란의 핵 보유를 차악,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최악으로 간주하고, 서구의 이해당사국들과 이란이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협상해줄기를 바라고 있다.⁶⁵⁾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일단 막고, 순차적으로 이란 핵 보유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동지역 국가들이 표방하는 대이란 정책에는 미묘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모두 이란의 핵 보유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알려진 이후 중동국가들이 앞다투어 원자력 에너지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추진 계획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⁶⁶⁾ 따라서 이란의 핵 개발이 중동 전역에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 이란 내 정치 동향

핵 개발 문제로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 사이에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2005년 대통령에 취임한 아흐마디네자드는 핵 주권을

65) 이와 같이 터키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대립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에너지 수요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원이 이란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이란 무역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다.

66) Albright and Sticker(2010), p. 81.

선언하였다. 하타미 정부는 2004년 영국, 프랑스, 독일(EU-3)과 함께 핵 농축 중지에 합의했지만 아흐마디네자드는 반대로 우라늄 농축 기술의 진전 상황을 국가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비록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의 핵 주권 주장은 부시 정부의 군사외교정책 중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이에 미국은 2005년부터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이나 회사, 기관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20여 차례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3월 의장 성명을 통해 4월 28일까지 핵 개발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2006년 12월에는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로 핵 개발을 규제하는 결의안(1737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은 민수용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아흐마디네자드도 이란의 합법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핵 개발 권리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엔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유엔은 2007년 3월에 제재범위가 확대된 결의안 1747호를 채택하였다. 이어 2008년 3월에는 결의안 1803호, 2010년 6월에는 결의안 1929호를 채택하였다. 또한 EU,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각국 차원에서 제재안이 발표되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2009년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도 핵 주권론을 주장하면서 핵 개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핵 개발 문제를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모사데그(Mohammad Mosaddeq, 1882~1967)의 석유 민족주의 운동과 연계하여 핵 민족주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이란의 경제적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헌법 기관과 보수 정파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메스바흐 야즈디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이슬람법학자들도 핵 개발에 관한 한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야즈디는 처음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긍정적인 고위 종교지도자인데,⁶⁷⁾ 2005년 발행한 『이슬람 혁명, 역사적 정치변동』이라는 책에서 “이슬람의 관점에서 무슬림은 가장 뛰어난 군사장비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정 무기를 강대국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⁸⁾

야즈디의 강경한 입장은 이맘 마흐디에 대한 굳은 믿음에 기초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이란의 시아 무슬림은 종교적으로 세상 어딘가에 있는 12대 이맘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때까지 이슬람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슬람 공화국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⁹⁾ 아흐마디네자드 역시 이러한 메스바흐 야즈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슬람법학자가 되기 위한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 종교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하고, 이에 기반한 정치적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근거하여 세속주의를 반대하고 이맘에 대한 믿음을 정치적으로 실천하려는 보수 정파들의 입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7) Roy(2008), p.132.

68) CBSNews(2010).

69) 야즈디는 12대 이맘이 현실 세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 12대 이맘의 뜻이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Rahnema(2011), p. 49 참고.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입장과 함께 이란의 보수파 지도자들이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주변국들은 상당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란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바로 맞닿은 레바논 남부에서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무장투쟁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이스라엘 입장의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중동지역 내 군사적 긴장관계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란의 핵 개발은 이란의 보수 정치세력과 이슬람법학자들에게 정치적 또한 종교적으로도 정당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란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2009년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랜드(RAND) 국방연구소가 이란 전국에서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⁷⁰⁾ 응답자의 87%가 민간용 핵에너지 개발에 찬성하였고, 핵에너지 개발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무려 98%에 달하였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강하게 반대하였고, 5%는 그보다 작은 강도의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는 이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란의 핵에너지 개발을 지지하고 핵무기 개발도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란의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란 국민도 평화적인 용도의 핵 개발을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는 보수 정파에 대립적 입장을 나타내는 개혁파도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파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0) Elson and Nader(2011) 참고.

보수파가 강경일변도의 외교 전술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경제제재를 초래하고 오히려 핵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시사점: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이란의 정파간 경쟁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을 들 수 있는데, 1997년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심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과 2009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개혁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두 정파의 대립은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반면 보수파 내부의 대립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파와 그 반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이미 2012 총선을 거치면서 표출되었고 선거 결과만으로는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반대파의 세력이 보다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은 2013 대선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특히 이에 따라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싼 서구 국가들의 제재나 중동지역내 군사적 긴장 등의 국제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란 내부에서는 2013 대선 출마자의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대선 출마를 둘러싼 유력 후보들의 동정을 살펴보면, 이번 2012 총선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통합원리전선에서는 현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 현 테헤란 시장 갈리바프, 국회 내 원리파 대표이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

타바를 사위로 둔 골람 알리 하다드 아델 등이 예상후보로 거론된다. 아흐마디네자드 반대파에 속하는 이슬람혁명 저항전선에서는 모흐센 레자이가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레자이는 2009 대선도 출마하였다.

개혁파 진영에서는 2013 대선 참여 여부를 두고 아직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 총선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개혁파의 거두인 하타미 전 대통령은 총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개혁파 인사들과 대립하였다. 하타미의 2013 대선 도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타미는 대선 출마에 대해 현재 부정적인 입장이고, 대신 현 정부가 공정한 대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일환으로 정치범을 석방하고 헌법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타미 이외에는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Mohammad Reza Aref), 압둘라 누리(Abdollah Nouri), 카말 하라지(Kamal Kharazi), 이스하그 자한기리(Ishagh Jahangiri), 고드라톨라 알리하니(Ghodratollah Alikhani), 모사파 코아크바얀(Mosafa Koakbayan), 모함마드레자 타베시(Mohammad-Reza Tabesh) 등이 개혁파의 후보군으로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는 대부분 아흐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현 대통령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경제적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등 경제 환경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아흐마디네자드가 포퓰리스트 분배정책을 위해 조세 부담을 늘린 것에 대해 전통 시장의 상인이나 중산층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반아흐마디네자드 인사들이 단일한 정파를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혁과 진영은 대선 참여 여부 등과 같은 정파 내 갈등 요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향후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서구의 경제제재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은 보수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 문제의 요체는 미국이 이란의 끊임없는 요구대로 20% 핵 농축을 용인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란은 수차례에 걸쳐 핵의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불완전한 국내 에너지 수급문제의 해결과 암환자 방사선 치료를 위해 핵 농축 수준을 20%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향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란의 핵 농축 자체를 반대하며 핵 시설의 완전 철폐가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특수한 정치 및 권력 구조는 이란의 선택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란의 정치체제는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헌법수호위원회, 전문가 의회, 사법부, 혁명수비대 등에 의해 이슬람 혁명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에 벗어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가 이맘 마흐디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매우 강하고 이란 국민에 대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과 서구 국가들의 대치 국면은 다시 이란 국민의 반미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이란의 이슬람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를 지지하는 보수파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제4장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

1. 개요
2.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1980~90년대 초반
3. 실용파와 개혁파의 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4.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2000년대 중반 이후
5. 시사점: 향후 경제정책의 전망



1. 개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와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란의 특수한 정치·권력구조하에서 주요 정치세력이 표방하는 경제정책의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요 정파별로 경제정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먼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등장한 모든 정파들이 경제정책을 이슬람 혁명 및 이슬람법의 가치를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각 정파들이 경제정책의 목표로서 경제적 독립이나 사회정의 등과 같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파간 경제정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은 2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이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각 정파들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상 각 정파들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근거하여 최고지도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헌법수호위원회, 국가정책심의위원회, 혁명수비대 등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감독과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에서 주창한 가치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직후 8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 등 이슬람 혁명에서 나타난 가치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의 정치·권력구조하에서는

주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정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파 간 연합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정파 간의 경제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각 정파의 존립기반이 되는 지지세력이 상이하고 또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정권을 창출하기 때문에 정파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파별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0년대는 혁명 직후 호메이니가 최고지도자로서 정권을 잡고 또한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의 가치 구현을 위해 정파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잠복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호메이니 사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파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1980년대 무사비 정부하에서는 전시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 통제 및 긴축 기조를 강화하였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후 재건사업을 위해 국가 통제정책을 완화하고 상인계층의 이해관계를 보다 확대하려는 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 1990년대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 시기에 힘을 얻은 중도실용파는 외국자본 도입을 통한 산업자본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상인계층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려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중심의 온건적 보수파와 대립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하타미 대통령 재임 시기에 정권을 잡은 개혁파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중도실용파의 경제정책을 중용하여 외국투자도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통제정책을 강조하는 보

표 4-1. 주요 정파별 특징

	온건보수파	중도실용파	개혁파	강경보수파
대표 조직	투쟁적 종교지도자 연합회(JRM)	이란 건설의 활동가 (Kargozaran-e Sazandegi-ye Iran)	투쟁적 종교지도자 연맹(MRM)	이슬람 이란의 건설자 동맹 (Abadgaran-e Iran-e Eslami)
주요 지도자	하메네이 (1981~89년 대통령 역임, 현 최고지도자)	라프산자니 (1989~97년 대통령 역임)	하타미(1997~05년 대통령 역임), 무사비, 카루비	아흐마디네자드(2005년 이후 대통령), 메스바흐 야즈디
지지 기반	보수적 종교지도자, 상인엘리트 계층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기업인, 신흥 중산층	지식인, 여성, 중소상인, 진보적 관료	민병대, 혁명수비대, 급진적 종교지도자
이념적 특징	정치적 현상유지 이슬람 가치 수호 외세 배격	온건 보수파에 비해 실용주의적·자유주의적 입장	언론의 자유, 문화적 관용주의 대외개방	사회정의와 평등 우선 마흐디 교리 강조 핵 강경론
주요 경제 정책	대상인계층 이익 보호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통한 현대화	외국인투자 확대 민영화 확대	국가 주도 경제 서민에 대한 보조금 확대

자료: 유달승(2009), p. 285, 유달승(2012), pp. 1~5를 기초로 하여 저자 수정.

2.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1980~90년대 초반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세력은 1979년 2월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이슬람 공화당(Islamic Republican Party)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슬람 경제체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슬람 경제란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이슬람법을 위배해서는 안되고, 사회정의와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다. 혁명세력은 이러한 이슬람 경제의 기초 위에 경제적 자립(self-sufficiency)과 독립(independence)을 정책 목표로 삼았고, 이러한 경제적 독립이 문화적 및 정치적 독립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1979년 7월에는 이란 산업의 보호 및 확대법을 통해 철강, 구리, 알루미늄, 자동차, 선박, 비행기, 석유, 가스,

전력산업 등을 국유화하는 한편 재단을 설립하여 반혁명인사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국가통제부문을 확대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대부분 이란·이라크 전쟁(1980. 9~1988. 8)으로 인한 전시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국가통제에 의한 엄격한 긴축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 규제를 강화하는 문화정책 등을 추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경제와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이슬람 혁명의 수출을 내세웠다.

새로운 이슬람 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기본 방향은 1979년 12월에 통과된 헌법을 통해 제시되었다. 헌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고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국자본의 착취에 의한 종속적 자본주의(dependent capitalism)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조에 국가 목표 중의 하나로 제국주의와 외세 침투의 철폐를 명시하였다. 헌법 제4장(43~55조)에는 경제 및 금융 부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43조에 따르면 독점 및 외세의 경제적 지배를 금지한다. 44조는 이란 경제를 국가, 조합 및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고 국가부문에 모든 대규모 주력 산업, 교역, 주요 광물, 은행, 보험, 발전, 댐, 대규모 관개 네트워크, 라디오, 텔레비전, 우편, 전신 및 전화 서비스, 항공, 선박, 도로, 철도 등을 포함한다.⁷¹⁾ 또한 81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고, 82조에는 국내에 관련 전문가가 없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서서히 종반에 이르

71) 이 조항은 이슬람 경제가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은 2004년 이란 경제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게 되고 당시 무사비 정부가 주도한 국가통제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혁명 초기 보수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⁷²⁾ 당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먼저 전시경제의 국가통제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대상인계층의 불만도 커졌다. 또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었다. 석유부문의 생산설비는 투자 감소로 효율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입 또한 혁명 이전보다 40%나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무사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 등은 전후 재건사업과 이란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온건파의 입장은 이슬람 경제하에서도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 사유재산과 사기업의 상업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46조와 47조에 두고 있다. 즉 46조에는 누구나 합법적인 비즈니스와 노동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으며, 47조에는 합법적으로 취득된 사적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온건파는 1979년 혁명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인 대상인계층(bazaari)의 육성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경제 개방은 반대하지만 필요하면 외국자본의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1987년 6월 이슬람 공화당이 해체되면서 보수파의 입장은 크게 약화되었다.⁷³⁾ 1988년 7월에는 호메이니가 유엔 정전결

72)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의 주도로 개진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정파를 무사비 정부의 보수파에 대비하여 온건파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의 입장은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된다.

의안 598호를 승인하면서 이라크 전쟁 이후의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다. 또한 이란 국민은 혁명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무사비 정부의 보수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의 실패에 따라 보수파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다. 결국 1989년 6월에는 호메이니를 이어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임명되었으며, 1989년 7월 대선에서는 라프산자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⁷⁴⁾ 그리고 수정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직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대통령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온건파는 이란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지키면서 어떻게 이란 경제의 전후 재건을 이루고, 이를 위해서 외국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라프산자니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슬람 혁명의 기본 원리를 지지하면서도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고 이란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및 근대화를 통해 국가적 주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⁷⁵⁾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로부터의 고립화를 탈피하여 개혁개방을 통해 우방국들과 경제협력관계를 재개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즉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받아들이고 비석유 부문 제조업 생

73) 당시 라프산자니가 이슬람 공화당의 해체를 호메이니에게 건의했으며, 해체 이후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가 주도한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RM)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들에 반대하는 국가주의 옹호론자들은 1988년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MRM)을 결성하였다.

74) 라프산자니는 1980년대 초반 보수파와 온건파 양쪽 모두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 온건파와 보수파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온건파로 기울기 시작했다.

75) 유달승(2012), p. 2 참고.

산과 수출을 늘리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정책으로는 유학과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하여 기획예산처(PBO: Plan and Budge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이었다.⁷⁶⁾⁷⁷⁾ 1990년 1월 의회를 통과한 1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당시 주요 경제문제로 GDP 감소, 석유수입 의존도 증가,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 지역간 및 부문간 불균등 발전, 투자 부족, 빠른 인구증가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동 계획은 민간부문을 육성하여 산업생산을 늘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영화, 외국자본 도입,⁷⁸⁾ 외국기업과의 관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세 곳에 자유무역지구(Free Trade-Industrial Zones)도 지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서방세계와 관계 개선(rapprochement)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산업화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소련 등 선진국 경제와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라프산자니 정책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평가는 낙관적이었다. 세계은행이나 IMF 등 국제금융기관도 라프산자니의 경제자유화 정책을 환영하고, 1990년에는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 경제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76) 무사비 정부는 1983년 7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자급적인 이슬람 경제의 건설을 위해 이란 최초의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슬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전시상황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77) 이란의 5개년 계획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을 담은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원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석유화학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란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인터뷰).

78) 이 시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외국자본의 도입(차관 형태)이 외국기업의 착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를 내렸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는 지역의 최대 유망시장으로서의 이란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다. 더욱이 이란의 전 시경제체제가 해체되고 호메이니 사후 실용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혁명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라프산자니는 대통령이 된 이후 2~3년 동안 자유화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수파가 3대 의회(1988~92)를 장악하면서 여전히 국가통제하의 경제만이 경제독립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라프산자니의 정책 입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파는 구소련과 관계 개선에 대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페레스트로이카를 모방하여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나타난 소련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개편은 라프산자니의 자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경제 자유화와 대외관계 개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세계은행과 IMF는 1989년 라프산자니의 대통령 선출 이후 석유수입 증가를 기반으로 민간부문 확대, 보호주의 철폐,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1994년 초 세계은행은 이러한 기대를 포기하였고, 미국의 압력으로 금융지원 약속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 외채 규모가 증가하여 외채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처음 라프산자니를 지지했던 세력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상인계층을 기반으로 하여 보수적 경향이 강한 하메네이 지지세력은 기획예산처(PBO) 등 정부의 실용주의적 테크

노크라트가 주장하는 산업화와 내외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실용파와 개혁파의 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라프산자니 대통령의 재임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기획예산처의 테크노크라트,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RM), 모탈레페(Motalefeh),⁷⁹⁾ 상인계층 등의 지지를 받은 온건파가 보수파의 입장과 대립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⁸⁰⁾ 또한 헌법수호위원회가 1992년 의회 선거에서 자격 검증을 통해 많은 보수파 후보들을 탈락시킴으로써 4대 의회(1992~96)는 온건파 의원들이 장악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헌법수호위원회는 보수파 정부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정부와 정책적 입장을 공유하게 되었다.⁸¹⁾

그러나 라프산자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도입과 산업 생산에 치중하고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1990년대 중반부터 온건파 내의 보다 보수적인 하메네이 지지세력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⁸²⁾ 특히 1993년 3월

79) 호메이니의 제안에 따라 1963년 발족한 정파로 대상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란 상공회의소(ICCIM)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80) 당시 주요 인물로는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누르바흐쉬(Mohsen Nurbakhsh),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아델리(Hosayn Adeli) 등이 있다.

81) 그러나 실용주의적 테크노크라트가 득세하면서 다시 정부와 갈등관계에 서게 된다.

중앙은행이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면서 상인계층이 다중환율제 도하에서 누렸던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된 데다 석유수입 감소, 인플레이션, 환율 절하, 수입 급증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증가, 단기부채 상환압력 같은 경제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RM)에 소속된 보수적 입장의 의원들과 상인계층이 정부 비판에 나섰다.⁸²⁾

보수적 온건파 세력은 전통적인 상인계층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산업생산보다는 교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외국자본이 국내 교역부문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상인 엘리트 계층은 대외 개방을 통한 산업화보다는 교역부문의 배타적 장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테크노크라트의 실용주의 정책은 외국자본과 세계은행, IMF 등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이 세력은 1980년대 전시경제 시기의 국가 통제정책을 반대했지만 테크노크라트가 주장하는 자유경쟁 확대정책도 거부했다. 1980년대에는 고립주의적 국가 통제경제를 둘러싸고 정책적 대립이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산업자본의 육성과 상인자본의 보호 사이에 정책 노선의 대립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적 온건파 세력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외국문화의 침투를 배격했다. 이들은 이슬람 원칙에 기초한 문화적·사

82) 1차 5개년계획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계획 자체의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았던 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5개년 동안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8.1%로 잡았는데, 당시 전후의 생산성 감소와 민간부문의 투자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였다. Ghasimi(1992), pp. 600-601 참고.

83) 그러나 보수파 중의 일부는 라프산자니의 경제정책에 동조하기도 했다. 즉 SMEE (Organization of the Mujahedin of the Islamic Revolution)는 보수파였지만 교역보다는 산업생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SMEE는 외국자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Pesaran(2011), p. 94 참고.

회적 개혁이 필요하며, 산업화나 선진기술 이외에도 가난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하메네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정의는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나테크누리(Ali Akbar Nateq-Nuri)는 1차 5개년 계획이 산업투자에 집중했다면 2차 5개년 계획은 가난한 사람과 저소득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의 실용주의 입장과 자유화정책은 후퇴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이나 IMF의 국제금융기관들은 1994년 이후 이란에 대한 지원정책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1996년 8월 이란·리비아 제재 법안(ILSA: Iran-Libya Sanctions Act)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이란의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제3국 투자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5년 기한으로 된 경제제재법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에서 1997년 대선에서는 투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RM) 소속의 나테크누리가 라프산자니가 그랬던 것처럼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되어 온건보수파가 정권을 잡고, 전통적인 상인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70%의 찬성으로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MRM)의 후보인 하타미(Mohammad Khatami)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타미는 1980년대의 보수파를 계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훨씬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고, 시민사회의 부활과 함께 이란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 경제 독립은 자기 봉쇄 또는 증오감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통합함으로써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문명 간 대화(Dialogue among Civilizations)를 주장했다. 하타미는 개혁운동(reform movement)에 기반하여 경제성장 이외에 사회정의와 평등을 강조하고 서방 세계와 유화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

였다. 즉 하타미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국가통제경제가 더 이상 경제 독립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슬람 혁명 원칙의 포기가 아니며 이란의 국익을 위해서는 혼합경제의 기반 위에 외국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하타미의 정책은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했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노선과 크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1992년 4대 의회에서 배제된 일부 보수적인 정파는 이러한 하타미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라프산자니 시기의 실용주의자와 연합하여 보수적 온건파에 대항하기로 했다. 또한 하타미는 보수파 이외에도 실용주의자, 친서방 산업자본가, 여성, 학생 등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⁸⁴⁾ 이에 따라 지지계층간 불안정한 파트너십 관계가 유지되고 정책간 모순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개혁과 진영은 확대되었다.

하타미는 서양철학을 공부한 이슬람법학자로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문화부 장관으로서 영화, 예술, 음악, 문학 등에 대한 규제를 풀기도 하였지만,⁸⁵⁾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었다. 대선기간에도 주로 사회정의, 언론의 자유, 사회적 기관의 자유,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슈에 대해 공언했고 경제문제에는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 하타미를 지지한 보수파 세력도 경제성장보다는 정치발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사회정의와 정치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하타미 정부는 혁명 초기 국가주의적 경제정

84) 이 지지계층을 1997년 대통령 선거일의 이란력 날짜에 따라 호르다드 2일 전선(Second of Khordad Front)이라고 불렀다. 호르다드(Khordad)는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란력의 3번째 달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력의 5~6월에 해당한다.

85) 하타미는 이슬람정부가 인민의 종이며, 따라서 인민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책이나 라프산자니의 경제정책을 바꾸고자 하였다. 즉 그들은 경쟁력, 투자, 생산이 증가하는 경제체제를 달성하면서도 사회정의가 우선시되는 제 3의 정책을 원했다. 그러나 하타미를 지지한 보수파 세력은 3대 의회가 해산된 1992년 이후 정부나 의회 권력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최근 경제 문제를 다루어 본 전문가가 없었다. 결국 하타미 정부는 라프산자니 정부의 실용파 인사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개혁파와 실용파의 연합이 이루어졌다.⁸⁶⁾

하타미 지지세력은 라프산자니의 자유화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외채 위기에 대해서는 상인 엘리트 계층이 정치를 독점하면서 심화되었다. 따라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더 좋은 경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았다. 또한 라프산자니의 민영화정책도 자본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공정하게 이전하는 데 실패하였고, 국가 권력과 특수 관계인 상인 엘리트 계층에만 특혜를 줌으로써 부패와 지대 추구행위만 늘어나게 되어 사회정의 및 빈곤 퇴치에는 타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경제정책 면에서 라프산자니는 국가통제경제 완화, 민영화, 외국자본 도입 등의 정책을 추구했지만, 하타미는 국가의 주도아래 빈곤 척결 및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라프산자니 정부하에서 유리한 시세로의 외환 매매나 저리 대출 등의 특혜를 받은 상인 엘리트집단과 재단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인 엘리트집단이나 재단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타미 정부하에서 가장 특징적인 정책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확

86) 이때 실용파는 이란 건설의 활동가(Kargozaran)가 주축이 되었다. 이는 5대 의회 선거 직전인 1996년 1월에 설립된 조직으로 전통적인 상인 엘리트계층과 절연하고자 하였다.

대한 것이었다. 산업자본가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인과의 투자 관련 협상력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⁸⁷⁾ 라프산자니 정부는 외채를 선호했지만 하타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선호했다. 이는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외환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3차 5개년 계획이 6% 성장률, 76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더 많은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면 민영화와 경제자유화에도 도움을 주고, 사회 불안과 정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우호적인 정치적인 조건이 형성된 것은 개혁파 의원들이 대거 들어선 6대 의회(2000~04)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⁸⁸⁾ 상인엘리트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수호위원회의 반대에도 의회의 70%가 하타미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6대 의회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혁파는 1955년 11월 입안했던 「외국인투자 유치 및 보호법(LAPFI: Law for the Attrac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법은 이미 국내 투자자에게 주는 동일한 권리와 특혜를 외국인에게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다.⁸⁹⁾ 이에 따라 2001년 5월

87) 그러나 재단은 기본적으로 대외개방에 반대하였다. Amuzegar(1999), p. 549 참고.

88) 실용파가 다수파였던 5대 의회(1996~2000)도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89) 이 법에 대한 개정 시도는 1994년에도 있었지만, 당시는 외채위기 및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적 여론 때문에 무산되었다.

LAPFI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인 엘리트 계층, 모탈레페(Motalefeh), 이란 상공회의소(ICCIM: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헌법수호위원회, 국가통제를 강조하는 보수정파 등이 반대하였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 대신 외국인 투자자만을 지원하게 되어 외국자본 및 외국인 지배로 이어지게 되고, 국내 자원 약탈, 외환 반출, 문화적 침해, 소비주의 증가, 안보 위협 등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해 6월 헌법수호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아 입법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수호위원회가 입안을 세 번 거부함에 따라 국가정책심의위원회(Expediency Council)로 이 개정안의 결정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결국 당시 국가정책심의위원회의 의장인 라프산자니의 도움으로 2002년 5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법(FIPPA: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으로 통과되었다.⁹⁰⁾

민영화 정책도 1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이래 경제정책 담당자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하타미 정부도 민간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타미 정부가 라프산자니 정부와 달랐던 점은 사회정의와 인민으로의 공평한 자본 분배가 더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하타미 정부에서 통과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석유산업 이외에 국유기

90) 그러나 FIPPA의 통과 이후 외투 기업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상인엘리트계층의 반대, 미국의 제재 등으로 외국인 투자규모가 크게 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2000~04년 기간 이란의 연간 FDI 규모는 MENA 전체의 3% 이하였다. 반면 터키는 이란의 여섯 배였다. (Pesaran(2011), p. 135) 또한 1999년 11월 하타미 정부하에서 통과된 3차 5개년 계획도 외국자본의 지배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 이 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간 외채 상환금액이 외환 수입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이 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총 외채규모는 250억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며,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언론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Pesaran(2011), p. 115 참고.

업의 재조직화,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었고 불필요한 독점을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2000년에는 공업부(Ministry of Industries)와 광업부(Ministry of Mines and Metals)를 통합하여 광공업부(Ministry for Industries and Mines)를 신설하고 통합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세웠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명 간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경직되었던 미국 및 EU와 협력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⁹¹⁾ 하타미 대통령은 1998년 1월 미국과 이란 양 국민의 교류를 제의하고 1999년 3월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이탈리아 및 교황청을 방문하였다.⁹²⁾ 이에 따라 미국은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 법안(ILSA)을 통과시켰지만 하타미 대통령의 선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 입장을 완화했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1999년 5월 토탈, 페트로나스, 가스프롬 등이 이란과 20억 달러 규모의 석유개발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양해하였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미국 국무장관 마들렌 올브라이트가 1953년 발생한 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영국과 외교 관계도 루시디(Rushdie) 사건이 해결되면서 1999년 5월 대사급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유화 국면은 하타미 대통령 및 개혁파에 대한 지지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미국 부시 정부 출범 직후인 3월에는 대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조치가 갱신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미국 하원에서 이란·

91) 1998년 11월 유엔 총회는 하타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1년을 문명 간 대화의 해로 지정하였다.

92) 하타미는 이후 1999년 10월에는 프랑스, 2000년 7월에는 독일, 2001년 3월에는 러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이러한 EU와의 관계 강화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압력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리비아 제재 법안에 대한 5년 연장안이 가결되는 등 ‘문명 간 대화’는 점차 멀어졌다. 특히 2001년 9·11 사태 이후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 교서에서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의 하나라고 선언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핵정책보고서에서 이란이 7개 핵공격 대상국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 보수정파들의 반미 감정은 더욱 고조되었고, 반면 개혁파의 입지는 크게 제약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라프산자니 정부의 중도 실용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사회 정의와 같은 혁명적 이상을 견지하면서도 이란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려던 하타미의 시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1990년대 후반 집권에 실패한 보수적 온건파는 여전히 국가주도경제를 주장하는 보수정파와 연합하여 반개혁파 진영을 형성하였고 결국 2000년대 중반 집권에 성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4.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2000년대 중반 이후⁹³⁾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용파와 연합한 개혁파는 국내 정치개혁과 민영화, 국제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개혁파는 민간부문의 산업 생산 증대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93) 이 절에서 총칭하는 보수파는 1980년대의 보수파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적 온건파와 국가의 통제경제를 강조하는 강경보수파를 말한다.

의료, 치안, 공공서비스 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외적 협력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적 고립상태를 해소하고 외국자본과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가난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적 상인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온건보수파와 1980년대 보수파에 뿌리를 두면서 국가통제경제를 강조하는 강경보수파는 개혁파의 경제정책은 경제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보수진영의 주장은 교역부문을 장악한 상인엘리트계층과 혁명재단이나 혁명수비대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상인엘리트계층은 민영화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교역부문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부문에서는 찬성했지만 자신들 이외의 민간부문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반대하였다. 국가의 개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개입이 상인자본의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면 반대하고, 상인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지하였다.

또한 보수 세력들은 대외관계 측면에서도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남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창출이 아닌 외채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젊은 청년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관계 개선 전략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들여오고 독점적 다국적기업의 착취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는 국내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란이 WTO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세계화는 이란의 경제적 독립을 지켜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립은 2003년 5월 지방선거와 2004년 2월 7대 의회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정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헌법수호위원회는 2004년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개혁파 후보자를 대거 떨어뜨렸다.⁹⁴⁾ 결국 6대 의회에서는 상인엘리트계층 기반의 보수파 의원들과 국가통제경제 옹호론자들이 대거 탈락했지만 7대 의회에서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7대 의회의 승인을 받은 4차 5개년 계획은 개혁파보다는 보수파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즉 이 계획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정의 실현과 청년의 혁명정신 고취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실현할 수 있었다. 6대 의회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반개혁파 중심의 7대 의회에서는 하타미 정부에서의 경제 자유화 정책을 되돌리고자 했다. 결국 반개혁파 진영은 혁명의 원리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원리주의자(osulgarayan, principlist)로 단합한 반면 개혁파 진영은 점차 분열 양상을 보였고 부패 문제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지지기반이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를 기반으로 2005년 6월 9대 대선에서 아흐마디네

94) 헌법수호위원회는 1992년 총선에서도 라프산자니 지지층의 확대를 위해 당시 보수파 소속 입후보자들을 중심으로 30%를 탈락시켰다. 2004년 1월에도 8,146명의 후보자 중 2,380명이 탈락했다. 당시 대통령 하타미와 국회의장 카루비 등이 탈락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했지만 214명만이 구제되었다. 탈락 사유는 반혁명적 활동,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부패 연루 등이었다(Pesaram(2011), p. 147 참고).

표 4-2. 2005년 대선 1차 투표 결과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라프산자니	6,179,653	21.0
아흐마디네자드	5,710,354	19.5
카루비	5,056,686	17.3
갈리바프	4,075,189	13.9
모스타파 모인	4,069,699	13.8
알리 라리자니	1,716,081	5.9
모흐센 메흐랄리자데	1,287,440	4.4
무효표	1,305,755	4.2
총투표수	29,400,857	100
총유권자	46,786,418	
투표율	62.8%	

자료: 이란 내무부 발표자료, 재인용: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이란 데이터 포털 사이트
(www.princeton.edu/irandatportal/elections/pres/2005).

자드는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⁹⁵⁾ 1차 투표(2005. 6. 17)에서 1등을 차지한 라프산자니는 혁명적 가치도 지키면서 실용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중도실용파 후보로 나섰지만 전후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이며 구세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하메네

표 4-3. 2005년 대선 결선 투표 결과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아흐마디네자드	17,248,782	61.7
라프산자니	9,210,853	38.3
무효표	1,499,296	-
총투표수	27,958,931	100
총유권자	46,786,418	
투표율	59.76%	

자료: 이란 내무부 발표자료, 재인용: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이란 데이터 포털 사이트
(www.princeton.edu/irandatportal/elections/pres/2005).

95) 아흐마디네자드는 2003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테헤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결국 결선투표(2005. 6. 24)에서는 하메네이,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및 민병대의 지지를 받은 아흐마디네자드가 61.7%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2003년 지방의회 선거와 2004년 총선을 치르면서 결성된 이슬람 이란의 건설자 동맹(Abadgaran-e Iran-e Eslami)과 함께 민병대 및 혁명수비대와 연계했고 도시노동계급 및 빈민층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란의 석유수입을 국민의 저녁식사 테이블로 갖다주겠다는 공약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에 많은 환영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라프산자니와 하타미의 산업화 정책 및 개혁운동에 반감을 가졌던 상인엘리트계층도 지지하였다.

아흐마디네자드는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혁명수비대의 희생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정의 등과 같은 이슬람 가치도 강조했다. 특히 아흐마디네자드는 종교적으로 마흐디 교리를 부각하여 강력한 이슬람사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메스바흐 야즈디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2대 이맘 마흐디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⁹⁶⁾ 또한 아흐마디네자드는 호메이니가 설정한 혁명원칙에 충실하고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보다는 국내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즉 라프산자니와 하타미의 실용주의적 정책과 같이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 관계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대외 관계는 이란의 조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였다.⁹⁷⁾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980년대 무사비 정부의 고립주의를

96) 이에 따라 아흐마디네자드의 정책을 ‘신이슬람 혁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97) 아흐마디네자드는 하타미가 2004년 11월 핵 농축을 자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함으로써

주장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즉 혁명정신의 구현에 필요하다면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받아들였다.⁹⁸⁾

이에 따라 아흐마디네자드의 경제정책을 보면 사회정의 등과 같은 이슬람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국가주도적(statist)이고 서민을 위한(populist) 정책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구축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고, 필요하면 석유안정화기금(Oil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기도 했다.⁹⁹⁾ 신혼부부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는 이맘 레자 사랑기금(Imam Reza Love Fund)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¹⁰⁰⁾ 이와 관련된 법안은 2005년 10월 의회에 제출되어 반아흐마디네자드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아흐마디네자드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벌이지 않았다. 이는 원유가가 2005년 이후 급등하면서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도 영향이 있었지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외국의 주요 은행들이 이란 정부의 부채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고, 이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중단했다. 결국 2005년 이후 GDP 대비 FDI 비율이 크게 줄었고, 이는 이란 내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국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98) 아흐마디네자드는 2006년 9월 유엔 연설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불균등한 세계질서를 언급하면서 기존 질서에 의해 차별받는 나라들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99) 석유안정화기금은 2000년 하타미 정부가 유가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립하였다.

100) Pesaran(2011), pp. 172-173 참고.

특히 석유산업은 서구의 에너지 메이저 기업 대신 브라질, 중국, 베네수엘라 등의 석유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석유 탐사활동의 감소로 생산량 감축을 우려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고유가로 석유 관련 수입은 줄지 않았고 미국의 제재 영향도 극복할 수 있었다.

대외 관계에서는 하타미 정부에서처럼 관계 개선과 대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반미 또는 반이스라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서구국가들에 대해 더욱 대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즉 부시 정부의 ‘악의 축’ 발언 등 이란을 비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고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대외정책을 불필요하게 극단으로 몰고 가서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호메이니의 혁명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또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흐마디네자드는 방어적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의 달성을 위한 투쟁을 위해 핵 주권론을 제기하였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핵 개발을 통해 국가적 자부심과 역내 영향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자립이라는 혁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진보를 앞당기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흐마디네자드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정치적 이득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경부터 하메네이와 아흐마디네자드 간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반아흐마디네자드 입장의 보수정파가 형성되면서 아흐마디네자드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⁰¹⁾ 대표적으로 아흐마디네자드가 사회정의를 위해 추진했던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확대 정책은 서민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101) 반아흐마디네자드 입장의 보수정파가 생겨난 것은 아흐마디네자드의 인사 패턴, 즉 장관직에 자신이 잘 아는 친구나 지인을 임명하는 경향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화폐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서 중산층의 불만이 크게 높아졌다.¹⁰²⁾ 또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주식 대신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4차 5개년 계획(2005~10)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8%에 이르지 못하고 3.5%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Pesaran(2011), p. 185). 아흐마디네자드는 국가의 개입으로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유치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았고 외국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경제성장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평등주의적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는 상인엘리트계층과 그 계층의 지지를 받는 보수정파들이 아흐마디네자드의 포퓰리스트 경제정책과 모험주의적 대외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8대 의회(2008~12)에는 그러한 비판적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회의 비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¹⁰³⁾

5. 시사점: 향후 경제정책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 정파의 쟁점은 1979

102) 이러한 상황에서 아흐마디네자드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에브라힘 샤이바니(Ebrahim Shaybani) 중앙은행 총재가 2007년 8월 사임했고, 2008년 4월에는 다네쉬 자파리(Danesh-Jafari) 재경부 장관도 사임했다.

103) 하타미 정부에서는 주로 헌법수호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에서는 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년 이슬람 혁명을 기반으로 건설한 이슬람 공화국의 정체성과 경제적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대외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로 집약된다.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상 모든 중요한 경제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고지도자, 헌법수호위원회 및 혁명수비대의 감독과 견제를 받기 때문에 집권 정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간주되는 정책수단들은 집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 또는 대통령과 최고지도자의 지지기반과 경제적 입장이 서로 다르면 상호 갈등을 초래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앞서 언급한 쟁점별로 정파들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먼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1980년대는 이슬람 혁명 직후의 전시경제체제였기 때문에 국가통제하의 경제부문 비중이 컸고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표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이라크 전쟁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보수적 상인엘리트계층을 중심으로 교역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늘어났고 이에 상인계층의 지지를 받는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의 온건파 세력도 확대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프산자니는 1989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 이후 나타난 쟁점은 민간 경제부문의 확대 및 산업활동의 발전에 관련된 것이었다. 즉 국가통제부문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는 주로 1990년대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 시기에 유학과 테크노크라트의 지지를 받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전후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러나 상인엘

리트계층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상인계층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과 최고지도자 중심의 정파는 라프산자니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반면 라프산자니는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실용주의 정파를 이끌게 되었다.

민영화 및 산업발전에 관한 쟁점은 1990년대 말 이후 하타미 대통령 재임 시기에 더욱 부각되었다. 하타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더욱 늘리고 대외적으로도 ‘문명간 대화’를 통해 서구사회와의 유화적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란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은 국가통제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을 확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보수적인 상인계층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외관계의 개선과 세계화에의 편입은 경제적 독립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타미 대통령은 정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정치적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최고지도자와도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중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당선은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980년대와 같은 전시장경제체제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국가 부문을 확충하여 서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지방의 경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

러나 2000년대 말부터 아흐마디네자드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최고지도자와의 종교적 및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하타미의 개혁정책이 좌절된 것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온건보수파와 아흐마디네자드를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파 간의 반개혁파 연합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의 정치상황은 두 보수파 간의 연합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 총선 결과를 본다면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정파가 앞으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실용파와 개혁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향후 대이란 국제제재의 강도, 유가 변동 추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적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대이란 국제제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강조될 것이다.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혁명 이후 새로 구축된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권력구조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파 간 분열과 연합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른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이슬람 혁명의 가치, 즉 이슬람법의 지배와 경제적 독립을 저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란 경제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에서도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대이란 국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은 이란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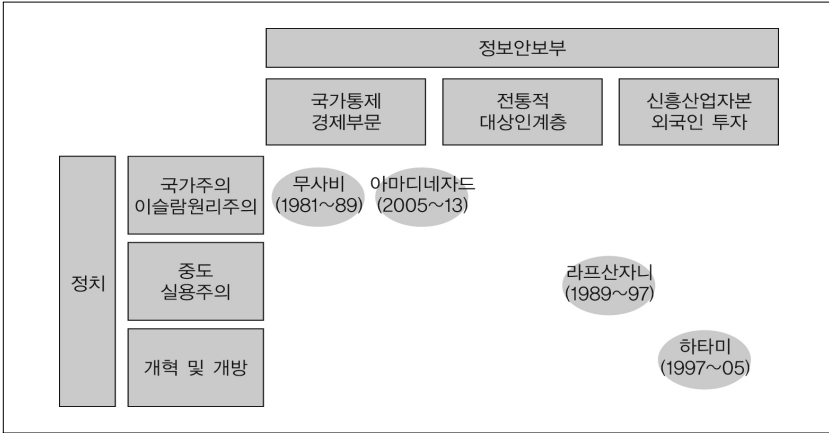
그러나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에 내재한 공화국 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민의가 정치세력과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치세력이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을 가지고 대립하거나 연합하게 된다. 그 정파 간 차별성을 주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보면, 1980년대 무사비 정부는 혁명 직후의 전시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를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도 이슬람 혁명 정신을 강조하는 이슬람주의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라프산자니 정부는 전후의 경제재건사업을 추진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상인엘리트계층의 지지와 함께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 반면 하타미 정부는 경제

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은 라프산자니 정부의 실용주의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선호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이전 하타미 정부의 개혁노선에 반기를 들고 최고지도자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사비정부의 국가통제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민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주요 정치지도자의 경제정책 및 정치 성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림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 무사비 정부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아흐마디네자드 정부가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이슬람 혁명 정신을 강조하면서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라프산자니와 하타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개방과 정치개혁을 통해 이슬람체제보다는 공화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경제질서와 외국자본의 활용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을 촉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질적인 측면이 있다.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 정치체제는 대체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개입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라프산자니와 하타미의 대통령 재임 시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향후 전 하타미 대통령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이란의 정치시스템이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그림 5-1. 주요 정치지도자의 경제정책 및 정치 성향 비교



자료: 저자 작성.

공존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체제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 및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정치적 자유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개혁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과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 차원에서도 주요 정파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각 정파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기업부문이나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하메네이 중심의 정파에서는 전통적인 대(大)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개혁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기술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산업자본가들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훨씬 강화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민영화 및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특수성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이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로 물류, 판매대금 결제 등 여러 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대이란 경험정책이나 개별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먼저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이후 대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최근에는 국제 공조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주요 수출품인 원유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원유 생산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부족과 리알화 약세,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안정성도 높아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 사치품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자국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즉 이슬람 혁명 정신에 기초한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제조업부문에서 완제품의 수입보다는 부품 수입 후에 현지 조립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향후 대이란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생산 및 유통환경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란은 인구 규모가 7,500만 명이 넘는 중동지역 최대 소비시장이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여 건설·플랜트 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도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된 이후의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표 1.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 내각 명단

직 위	이 름
제1부통령	모함마드 레자 라히미(Mohammad Reza Rahimi)
대통령 실장	에스판디아르 라힘 마샤이(Esfandiari Rahim Mashaie)
행정 부통령	하미드 바가이(Hamid Baghaie)
법률관계 부통령	파티마 보다기(Fatima Bodaghi)
법집행 부통령	호자틀레슬람 세예드 모함마드 레자 미르 타즈 알 디니 (Hojjat ol-Eslam Seyed Mohammad Reza Mir Taj Al Diny)
국회관계 부통령	로프톨라 포루잔데 데흐코르디(Lotfollah Forouzandeh Dehkordi)
국제관계 부통령	알리 사이들루(Ali Saeedlou)
계획·전략감독 부통령	베흐루즈 모라디(Behrouz Moradi)
부통령/순교자와 희생자 재단 이사장	마수드 자리바판(Masoud Zaribafan)
경영개발과 인사관계 부통령	에브라힘 아지지(Ebrahim Azizi)
부통령/원자력에너지기구 대표	페레이둔 압바시 다바니(Fereydoon Abbasi-Davani)
부통령/환경보호기구 대표	모함마드 자바드 모함마디 자데(Mohammad Javad Mohammadi Zadeh)
부통령/문화유산과 관광기구 대표	세예드 하산 무사비(Seyed Hassan Mousavi)
과학기술 부통령	나스린 솔탄하(Nasrin Soltankhah)
국무회의 비서	알리 사두기(Ali Sadoughi)
교육부 장관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Hamid Reza Haji Babaie)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레자 타기푸르(Reza Taghipour)
정보부 장관	호자틀레슬람 헤이다르 모슬레히(Hojjat ol-Eslam Heidar Moslehi)
경제재무부 장관	세예드 샴스 알 딘 호세이니(Seyed Shams Al Din Hoseini)
외무부 장관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Ali Akbar Salehi)
보건·의료교육부 장관	마르지예 바히드 다스트제르디(Marzieh Vahid Dastjerdi)
노동사회부 장관	압돌 레자 셰이홀레슬라미(Abdol Reza Sheikholeslami)
농업부 장관	사데그 할릴리안(Sadegh Khalilian)
법무부 장관	세예드 모르테자 바흐티아리(Seyed Morteza Bakhtiari)
국방전략부 장관	사르다르 아흐마드 바히디(Sardar Ahmad Vahidi)
도로·도시개발부 장관	알리 니크자드(Ali Nikzad)
공업광산무역부 장관	마흐디 가잔파리(Mahdi Ghazanfari)
과학연구기술부 장관	캄란 다네슈주(Kamran Daneshjou)
문화이슬람부 장관	세예드 모함마드 호세이니(Seyed Mohammad Hosseini)
내무부 장관	모스타파 모함마드 나자르(Mostafa Mohammad Najar)
석유부 장관	로스탐 가세미(Rostam Ghasemi)
에너지부 장관	마지드 남주(Majid Namjou)
체육청년부 장관	모함마드 압바시(Mohammad Abbasi)

자료: 이란 대통령실 홈페이지(<http://www.president.ir/en/cabinet>). (검색일: 2012. 8. 1)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유달승. 2009.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 한겨레출판.
- _____. 2010. 『이란의 군부엘리트와 부족주의의 관계 연구』. 『중동연구』, 28권 3호. pp. 97~115.
- _____. 2012. 『1990년대 이후 이란의 권력구조 변화와 전망』. pp. 1~5. 전문가초청 회의 발표자료(2012. 6.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서영 · 박철형 · 강성수. 2010. 『이란의 주요 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병욱. 2004. 『현대 이란정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상률 · 박현도 · 안정국. 2011. 『2011년 중동지역 기초연구: 이란,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영문자료]

- Albright, David and Andrea Sticker. 2010. "Iran's Nuclear Program." Robin Wright ed. *The Iran Primer: Power, Politics and U.S. Policy*.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Al-Naraqi, Ahmad(n.d.). Chapter 54. "Fi bayan wilayat al-hakim wa ma lahu fihi al-wilayat(이슬람법학자 통치의 의미와 논의사항)." Awaid al-Ayyam(역사의 반복). <http://www.naraqi.com/ara/g/g03/g03.htm> (검색일: 2012. 3. 1)
- Amuzegar, Jahangir, 1999. "Khatami and the Iranian Economy at Mid-Term." *Middle East Journal*, Vol 53, No. 4.
- Arjomand, Said Amir. 1984. *The Shadow of God and the Hidden Ima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akhsh, Shaul. 1985. *The Reign of the Ayatollahs: Iran and the Islamic Revolution*. London: I. B. Tauris.

- Buchta, Wilfried. 2000. *Who Rules Iran?: The Structure of Power in the Islamic Republic*. Washington: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and the Konrad Adenauer Stiftung.
- Calder, Norman. 1987. "Legitimacy and Accommodation in Safavid Iran: The Juristic Theory of Muhammad Baqir al-Sabzavari." *Iran*, 25, pp. 91-105.
- CBSNews. 2010. "Top Cleric: Iran Has Right to 'Special Weapons'." (June 14)
- Coughlin, Con. 2010. *Khomeini's Ghost: The Iranian Revolution and the Rise of Militant Islam*. New York: Harper Collins.
- Davari, Mohammad. 2012. "Lonservatives tighten grip on Iran Parliament." AFP. (May 6)
- Eisenstadt, M. 1996. *Iranian Military Power: Capabilities and Intentions*. Washington, DC: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 Elson, Sara Beth and Alireza Nader. 2011. *What Do Iranians Think? A Survey of Attitudes on the United States, the Nuclear Program, and the Economy*. RAND National Defense Institute.
- Esposito, John L. 2003. "Practice and Theory: A Response to 'Islam and the Challenge of Democracy'." *Boston Review*. (April/May)
- Etemad, A. 1987. "Iran." H. Muller ed. *A European Non-Proliferation Policy: Prospects and Problems*. Oxford: Clarendon Press.
- Ghasimi, M. R. 1992. "The Iranian Economy After the Revolution: An Economic Appraisal of the Five-Year Pl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24, No. 4.
- Gleave, Robert. 2003. "Niyabat-e 'amma." Richard C. Martin ed. *Encyclopedia of Islam and the Muslim Worl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 Ilias, Shayerah. 2010. "Iran's Economic Conditions: U.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 Karshenas, Massoud and M. Hashem Pesaran.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 Reconstruction of the Iranian Economy.” *Middle East Journal*, Vol. 49, pp. 89-111.
- Khalaji, Mehdi. 2007. “Iran’s Revolutionary Guard Corps, Inc.” *Policy Watch*, No. 1273.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 Nasr, Vali. 2006.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 London: W. W. Norton & Company, Ltd
- Omid, Homa. 1994. *Islam and the Post-Revolutionary State of Iran*. New York: St. Martin’s Press.
- Pesaran, Evaleila. 2011. *Iran's Struggle for Economic Independence*. Routledge.
- Rahnema, Ali. 2011. *Superstition as Ideology in Iranian Politics: From Majlesi to Ahmadineja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kel, Eva Patricia. 2009. “The Political Elite in Islamic Republic of Iran: From Khomeini to Ahmadinejad.”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29(1), pp. 105-125.
- Roy, Olivier. 2008. *The Politics of Chaos in the Middle E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ffari, Said. 1993. “The Legitimation of the Clergy's Right to Rule in the Iranian Constitution of 1979.”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20(1), pp. 64-82.
- Samii, Abbas William. 2006. “Iran: New Foreign Policy Council Could Curtail Ahmadinejad’s Power.”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June 29)
- Shirazi, Ashgar. 1997. *The Constitution of Iran: Politics and the State in the Islamic Republic*. London: I. B. Tauris.
- Spector, Leonard S. 2007. “Iranian Nuclear Program Remains Major Threat Despite Partial Freeze of Weapons-Relevant Activities Described in New U.S.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 Telhami, Shibley. 2011. *Annual Arab Public Opinion Survey*.
- Thaler, David E., Alireza Nader, Shahram Chubin, Jerrold D. Green, Charlotte Lynch, and Frederic Wehrey. 2010. *Mullahs, Guards and Bonyads: An Exploration of Iranian Leadership Dynamic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Vaziri, Haleh. 1986. "Iran's Nuclear Quest: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Raju G. C. Thoma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hrey, Frederic, Jerrold D. Green, Brian Nichiporuk, Alireza Nader, Lydia Hansell, Rasool Nafisi, and S. R. Bohandy *et al.* 2009. *The Rise of the Pasdaran: Assessing the Domestic Roles of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 Pittsburgh, PA: RAND Corporation.

[온라인자료]

- Guardian Council(헌법수호위원회). <http://www.shora-gc.ir>. (검색일: 2012. 8. 25)
- Islamic Republic of Iran's Presidency Website(이란 대통령실)
<http://www.president.ir/en/cabinet>. (검색일: 2012. 8. 1)
- Maslahat(이란 국가정책심의위원회).
<http://maslahat.ir/DocLib2/Irec%20Pillars/Irec%20council.aspx>. (검색일: 2012. 3. 20)
- Ministry of Interior(이란 내무부). <http://www.moi.ir>.
2005 Presidential Election. (n.d.). In Iran Data Portal.
<http://www.princeton.edu/irandataportal/elections/pres/2005>. (검색일: 2012. 12. 10)
- Modda'i-ye najat-e jame'e-ye jahani hastim amma mardom-e ma dar faqr va felakat'and: Enteqad-e Ayatollah Dastgheib az Hakimiyat. 2012. Rah-e Sabz. (June 17)
<http://www.rahesabz.net/story/54717>. (검색일: 2012. 6. 20)

Netayej-e nahai-ye dahmin-e dore-ye entekhabat-e riyasat-e jomhuri(10대 대통령 선거 최종결과). 2009. 이란 내무부 홈페이지. (June 14)
<http://moi.ir/Portal/Home/ShowPage.aspx?Object=News&CategoryID=832a711b-95fe-4505-8aa3-38f5e17309c9&LayoutID=dd8faff4-f71b-4c65-9aef-a1b6d0160be3&ID=5e30ab89-e376-434b-813f-8c22255158e1>. (검색일: 2012. 3. 1)

Qanun-e Asasi-ye Jomhuri-ye Eslami-ye Iran(이란 헌법)

(이란어) <http://www.parliran.ir/index.aspx?siteid=1&pageid=219>

(영문본) <http://en.parliran.ir/index.aspx?siteid=84&pageid=%203053>

(한글번역본) Iran Islam Kumahogo hantap 역,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테헤란: Alhoda International Publication & Distribution, 2010.

Radd-e salahiyat-e 600 namzad-e jarayan-e enherafi. 2012. Alef. (February 25)

<http://alef.ir/vdcexe8zfh8evi.b9bj.html?144837> (검색일: 2012. 3. 1)

Sahimi, Muhammad. 2004. “Iran’s Nuclear Energy Program. Part V: From the United States Offering Iran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to Suggestions for Creating Catastrophic Industrial Failure.” Payvand Iran News. (December 22). <http://www.payvand.com/news/04/dec/1186.html>. (검색일: 2012. 1. 5)

Savyon, A. and Y. Mansharof. 2012. “Iran’s Ninth Majlis Elections: A Show with Pre-Determined Results.” Inquiry & Analysis Series Report, No. 810. <http://www.memri.org/report/en/print6178.htm>. (March 14)

Executive Summary

Political Structure and Economic Policy in Iran

Kwon Hyung Lee, Jaeun Park, and Hyondo Park

The aim of this working paper is to examine economic policies of Iran's leading political factions around from Mousavi to Ahmadinejad, which ar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nd factional structures of the country,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 hybrid political structure combining Republican and Islamic institutions was established after the 1979 Islamic Revolution.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 a core ideology of Iran, has forced political factions to devote themselves to the Supreme Leader and values of the Revolution such as Islamic governance under Sharia and economic independence from foreign powers. This unique system has constrained Iran from moving into the global economy from current economic isolation impos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As a republican state, however, Iran has experienced political coalitions and conflicts through presidential as well as parliamentary elections by the direct vote of the people every four years. Policy differences by major political leader are as follows. During the Iran-Iraq war in 1980s, the Mousavi administration controlled economy with austerity policy and highlighted the Revolutionary spirit. The Rafsanjani administration attempted to win traditional merchant-elite classes (bazaari) and industrial capitalists, as well as to improve foreign relations with the West in order to promote post-war reconstruction. The Khatami administration continued Rafsanjani's pragmatic economic policies, but put greater emphas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n the

predecessor. Contrary to Khatami's economic reform program, the Ahmadinejad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government involvement to reduce social inequality, providing subsidies for food and fuel.

Despite current political uncertainties and economic sanctions, Iran has hug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with large construction sectors, huge consumer market of 75 million people and abundant hydrocarbon resources. Given its strategic significances, U.S., EU, and Japan can expand economic relations with Iran in the long term. Thus Korea also should prepare for more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 which will be necessary in the post-sanctions period of Iran.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12년

-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 이 용 · 송영철
-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오윤아 · 정재완 · 박나리
-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 장준영
-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 이요한
-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이재영 · 제성훈 · 김홍진 · 간투무르 몽크나산
-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 주진홍
-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조영관 · 성원용 · 이상준 · 주진홍
-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박상남
-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 장용규 · 설병수 · 황규득 · 강경화 · 배텔
-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이진상 · 변 용
-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 광성일 · 전해린 · 백석훈
-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박미숙 · 이시은
- 12-15 중남미 엘리트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기현 · 박운주 · 김영철 · 이상현

-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 이권형 · 손성현
-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 이권형 · 박재은 · 박현도
-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이재호 · 박나리
-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강부균 · 민지영
-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김진오 · 이시은
-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 윤서영 · 박재은
-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 전혜린
-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동남아시아
-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몽골
-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2011년

- 1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손승호 · 임정성
- 11-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 · 이영일
- 11-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 11-4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 · 조상민 · 박찬국
- 11-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11-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 11-7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 11-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 11-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 11-11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래·강대창·김유미·박나리
-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 11-13 한·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김영진·김일검·김안국·홍미희·성동기·이시영
-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2010년

- 10-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 · 강명구 · 김계환 · 김한철 · 성원용 · 이시영
- 10-2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성학 · 문창권 · 변현섭 · 이성훈 · 장세진 · 주진홍 · 최 호
- 10-3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박상남 · 손영훈
- 10-4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 은기수 · 박수미 · 박 건 · 장원봉
- 10-5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0-6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정치 · 문화
- 10-7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 · 자원 · 과학

이권형(李權炯) Kwon Hyung Lee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런던대학교(SOA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現, E-mail: k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공저, 2012) 외

박재은(朴在恩) Jaeun Park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 및 국제지역학 학사 졸업
미국 듀크대학교 정치학 석사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연구원
(現, E-mail: je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동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 방안 모색』(공저, 2012) 외

박현도(朴炫度) Hyondo Park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졸업
캐나다 매길(McGill) 대학교 이슬람연구소(이슬람학 박사) 수료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現, E-mail: hyondopark@hanmail.net)

저서 및 논문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기본법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과 세속적 정체성」(『중동문제연구』, vol. 10, no. 2, pp. 1-24, 공저, 2011) 외

전략지역심층연구 12-17
연구자료 12-28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42 FAX: 02-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02-2272-1533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333-9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2064-2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tical Structure and Economic Policy in Iran

Kwon Hyung Lee, Jaeun Park, and Hyondo Park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 한편으로는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라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정파들은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